



피로누적에
2차병원도
의료대란 임박
02



Economy

코스피	↑	2667.70 (+3.43)	코스닥	↓	868.57 (-1.54)
금리 (미국 3년)	↑	3.374 (+0.032)	환율 (원-달러)	↑	1331.00 (+2.30) (23일)

글로벌 반도체 업계, 美 중심 급속 재편

소외되는 삼성전자, 해법은 '기술력'

인텔, MS와 미래 AI '동맹'
英 Arm과도 협력 강화 약속
대만·日も 긴밀관계 이어가
삼성, 연구개발비 20% 증액
2·3나노 GAA 초격차 승부



'MWC 2024' 개막 임박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 개막을 이틀 앞둔 24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 전시장에 홍보물이 설치돼 있다. 이번 MWC 2024 주제는 '미래가 먼저다(Future First)'로, 앞으로 그려질 미래를 위해 다양한 기술과 산업, 집단, 국가가 단합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뜻을 담았다. <관련기사 4면>

/뉴시스

반도체 업계가 '지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기업들이 생태계에 속속 합류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만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삼성전자는 굳건하게 기술력을 확장하며 위기 속 '진짜 실력' 발휘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인텔은 최근 'IFS 다이렉트 커넥트' 행사를 열고 2030년까지 파운드리 시장 2위가 되겠다는 목표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소개하는 첫번째 공개 행사다.

특히 인텔은 이날 마이크로소프트(MS)에 차세대 18A 공정 반도체를 수주했다고 밝히며 성과를 자랑하기도 했다. MS가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가 인텔에서 생산할 유력한 후보 제품으로 추정된다. MS가 인텔과 미래 AI 동맹을 맺은 셈,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물론 챗GPT를 만든 오픈AI 샘 올트먼 CEO까지 동석했다. 영국 Arm도 동참했다. Arm은 CPU IP 설계 기업으로, x86을 주도해온 인텔과는 강력한 라이벌 관계다. 그럼에도 Arm 르

네 하스 CEO가 직접 연단에서 서인텔 파운드리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삼성전자GAA에 차세대 아키텍처를 최적화하겠다고 발표하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다. 업계에서는 인텔과 MS 동맹을 반도체 업계 '팀 아메리카'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이 인텔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는 상황, 전세계 AI 시장을 주도하는 MS와 손 잡았기 때문. 실제로 인텔 행사에는 미국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이 화상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그동안 미국 반도체 업계는 경쟁을 유지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서는 공고한 협력을 자랑해왔다. 메모리 부문에서는 엔비디아가 마이크론에서 JEDEC 표준도 아닌 GDDR6x를 중요하게 채택해왔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미국 반도체 업계는 대만과 일본과도 긴밀한 관계다. 대만 출신 쟈슨황 CEO가 이끄는 엔비디아는 대만 TSMC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왔다. 주요 팹리스들이 TSMC에 대부분을 수주하고

있으며, 일본 투자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일본 키옥시아와 미국 웨스턴디지털 합병도 꾸준하논의 중이다. 메모리 강국인 한국을 밀어낼 세계 최대 낸드플래시 업체가 탄생하는 것. 대만과 일본도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TSMC가 2022년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소니와 텐소 등 현지 기업들과 합작법인 JASM을 설립, 24일 구마모토현에 신공장을 열었다. 일단 10나노 이상 레거시 공정으로 시작해 추후 수나노대 파운

社告

100

메트로경제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 20일(수)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을 개최합니다.

저성장, 고금리 속에 국내외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잃어가는 수축사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테크 전략도 다시 짜야 합니다.

메트로신문은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국내외 경제와 주식시장을 전망하고, 고령화시대 재테크와 부동산 투자 전략을 모색합니다.

- 행사명 : 2024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
- 주 제 :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
- 일 시 : 3월 20일(수) 오후 2시~5시10분
(VIP 티타임 오후 1시30분~2시)
- 장 소 :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 문 의 : 100세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metro

드리까지 양산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한국도 '칩4 동맹'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국가이긴 하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HB M을 주력으로 공급하는 상황, 소부장 업계들도 TSMC를 비롯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장비 업체들도 국내에 투자를 확대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

4월 전세계 오가노이드 전문가 한국에 모인다

성남 판교서 'ODC24' 개최
국내외 25인 전문가 강연·토론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오는 4월25일 ODC24 '차세대 노말: 오가노이드와 함께하는 삶(The Next Normal: Living With Organoids)'을 개최한다

전 세계 오가노이드 전문가들이 오는 4월 한국에 모인다. 침샘 오가노이드와 장 오가노이드 치료제를 세계 처음 인체에 투여한 글로벌 전문가들도 모두 한국을 찾는다. 오가노이드가 지난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채택되고, 동물대체시험법으로도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오가노이드 기

술이 세계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오는 4월25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소재 차바이옴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ODC24 '차세대 노말: 오가노이드와 함께하는 삶(The Next Normal: Living With Organoids)'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로 7회차를 맞는 ODC24는 예년과는 다르게 ODC조직

위원회가 운영한다. ODC조직위원회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를 포함, 한국줄기세포학회, 베트남 빈그룹 산하 빈백국제병원,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베트남 현지법인인 VOS 디스커버리, 세계 최초 글로벌 동물대체 시험 플랫폼 랩다 바이오로직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코리아로 구성돼 있다. 특히 ODC24는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빈 그룹 산하 빈백 국제병원과 동시에 개최되

면서 한 단계 진화한 글로벌 컨퍼런스로 진행할 예정이다. ODC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컨퍼런스는 오가노이드 기술의 상용화, 오가노이드 기술의 잠재력, 오가노이드의 실제 활용 사례, 동물실험 대체 솔루션 등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내외 25인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각 세션 내에서 강연과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전 세계 오가노이드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어서 더욱 기대를 모은다. 우선 로버트 콕스 네덜란드 흐로닝엔대학 의료 센터 교수가

참석한다. 로버트 교수 연구팀은 침샘 조직으로부터 침샘 오가노이드를 제작, 방사선으로 인한 침샘 기능 저하 마우스에 이식해 침 분비량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이 침샘 오가노이드는 현재 인체 임상이 진행 중이다. 류이치 오카모토 도쿄 의과치과대학(TMDU) 교수 역시 한국을 찾는다. 류이치 교수 연구팀은 장 오가노이드 치료제를 개발, 지난해 난치성 질환인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게 세계 최초로 임상 시험을 진행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환자는 다음 날 퇴원했다. <2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윤, 3·1운동 105주년 기념 예배 "낮은 자세로 따뜻한 국정 펼칠 것" /사진 뉴시스
- ▲ 민주 "한동훈-윤재욱 기여도 재검토 '시스템 사천' 굳혀"

- ▲ 조태열, 뉴욕서 삼성전자 등 기업대표 만나 애로사항 청취
- ▲ 신장식 변호사, 조국신당 '인재1호' 입당



- ▲ 민주, 경선 여론조사서 '불공정 논란' 리서치디엔에이 배제'
- ▲ '컷오프 단식농성' 노웅래 "공천학살 아닌 통합의 정치 필요해" /사진 뉴시스

전임의 이탈 조짐, 2차병원 과부하... '3월 의료대란' 오나

전공의 집단행동 일주일

'피로누적' 전임의, 재계약 안할수도 2차병원서 비응급환자 등 떠안아 비상진료체계 붕괴 위기에 놓여

전체 70% 이상의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지 일주일여가 지나며 의료 현장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 전공의를 대신해 투입된 전임의(펠로우)들마저 이탈 조짐을 보이는 데다 비응급 환자를 떠안은 2차 병원의 역시 과부하가 걸리며 비상 진료 체계도 붕괴 위기에 놓였다. 의료 대란의 '3월 초 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라 우려도 커졌다.

◆피로 누적, 전임의도 떠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총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체 전공의 규모가 1만3000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70% 이상이 병원을 떠난 셈이다.



전공의 집단 이탈이 시작된 지 나흘째인 지난 23일 오전 광주 남구 한 2차병원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시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운지 일주일여가 지나며 그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던 전임의들도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말께 계약 종료로 앞두고 있는 전임의들이 병원과 재계약하지 않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인턴과 레지던트의 사직이 이어지자

이들을 대신해 초과근무를 하던 전임의들의 피로가 누적된 탓이다. 전임의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병원에 남아 1~2년간 세부전공을 수련하는 의사다.

전임의 비중이 전체 의사의 10~20% 가량에 달하는 빅5(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 병원은 전임의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

다. 전공의들의 공백이 큰 상황에서 전임의까지 자리를 비우게 되면 의료 차질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23일 보건 의료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코로나19 유행 같은 감염병 상황을 빼고 보건 의료 위기단계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차 병원 과부하도 우려 커져

의사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의 경우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역 거점 상급종합병원인 전남대병원 본·분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319명 중 278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중 200명 이상이 출근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있다. 조선대병원은 전공의 142명 중 113명이 복귀 명령 불이행 대상자로 최종 확정됐고, 이들 모두 근무하지 않고 있다.

신임 인턴 대다수도 임용을 포기했다. 전남대병원에 입사키로 했던 인턴 예정자 101명 중 86명(85%)이 임용을

포기했다. 조선대병원에서도 신임 인턴 36명이 모두 임용포기서를 제출했다.

3차 의료기관들이 비상 진료 체계 운영에 따라 비응급 또는 회복 중인 환자들을 조기 퇴원 또는 전원 조치하면서 2차 병원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대학병원으로 몰리던 외래 진료 환자들도 예약을 잡지 못하고 2차 병원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진료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상급 병원에서 소화하지 못한 수술까지 줄줄이 접수되면서 부담은 더욱 커졌다.

2차 병원 내 수술실·입원 병상 가동률이 꾸준히 증가할 경우 결국 각급 병원 내 진료 차질과 과부하가 발생할 우려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광주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3월 초까지도 전공의 이탈이 이어지면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이 심각하고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과일·채소 이어 설탕 등 가공식품 값 급등

통계청, 설탕값 두달째 20%대 상승 소금 20%, 아이스크림 15% 등 인상 어획량 감소 '오징어' 매월 10% 올라

과일과 채소 값뿐만 아니라 설탕·소금·차(茶) 등 가공식품 가격도 최근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향 안정화 추세였던 수산물 가격도 오징어 등 국내 인기 어종을 중심으로 크게 뛰었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설탕이 2개월 연속 20%대, 소금이 4개월 연속 20%대의 소비자 가격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을 기록했다.

설탕 값은 지난해 8월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3.9% 오른 뒤 9월 16.9%, 10월 17.4%, 11월 19.1%로 오름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이어 12월(20.1%)과 올해 1월(20.3%)에 20%대까지 상승폭이 치솟았다.

소금 값 상승은 더 빨리 시작했다. 소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전후로 천일염 품귀 현상 탓에 지난해 8월(13.4%)과 9월(18.0%) 10%대의 상승률을 보인 이후 10월(20.8%)과 11월(21.4%), 12월(22.3%), 1월(20.7%) 등



국내 한 대형마트에 설탕 제품이 진열돼 있다. 설탕은 해외 생산 감소 여파로 최근 전년 대비 20%대의 가격 상승폭을 보였다. /뉴스시스

년 달째 20% 선을 웃돌았다.

또 가공식품 중 아이스크림 가격이 12월과 1월에 2개월 연속으로 15% 넘게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는 설탕 가격 급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초콜릿(12월 13.8%, 1월 13.9%)과 잼 가격(12월 13.0%, 1월 13.5%)도 각각 최근 두 달째 13%대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농식품부는 가뭄과 엘니뇨 등이 상기후 탓에 설탕의 주요 산지 인도·태

국 등지에서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봤다.

수산물에는 농산물에 비해 오름폭이 크지 않았으나 오징어의 경우 동해 어획량 감소 여파로 상승률이 매월 10% 넘고 있다. 오징어는 지난해 8월 이후 12월(8.3%)만 제외하고 전년동월대비 상승폭이 여타 수산 품목에 비해 컸다. 8월 13.5%, 9월 12.4%, 10월 16.5%, 11월 10.0%, 올해 1월 12.0% 등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육아휴직자 줄었지만 출생아수 대비 증가

고용부, 작년 육아휴직자 3.9%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급증

지난해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육아휴직자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크게 증가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으로 전년 대비 3.9%(5076명) 감소했다. 다만, 출생아 수 감소 규모(-8.1%, -1만8718명)를 감안하면, 육아휴직 실제 활용률은 증가 추세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돌봄이 가장 필요한 자녀가 1세 미만인 영아기 때 가장 많았다. 영아기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67.0%(8만4488명)를 차지, 전년(64.3%) 대비 비중이 2.7% 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자녀 연령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급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3+3부모육아

휴직제' 도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3+3 부모육아휴직제' 사용자는 2022년 1만4831명에서 지난해 2만3910명으로 61.2% 증가했다. 육아휴직자 성별은 여성이 82.0%(9만672명), 남성은 28.0%(3만5336명)였다. 여성의 77.9%는 자녀 1세 미만에 육아휴직을 사용, 출산후기에 이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은 1세 미만 39.0%, 1세 이상 10.2%였고, 자녀의 초등 입학기인 6~7세 사용하는 경우는 19.2%였다.

육아휴직 사용자 수 감소는 출생아 감소 요인 외에도 올해 부모육아휴직제가 확대되면서 올해로 휴직 시기를 미룬 사람이 증가한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모육아휴직제도는 올해부터 사용 기한은 자녀 연령 생후 12개월 내에서 18개월 내로, 지원 기간은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급여 상한액은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확대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삼성, 日 기업서 '2나노 GAA' 수주 성공

▶▶ 1면 '소외되는 삼성전자'서 계속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TSMC에 수출 등 기술력에서 뒤쳐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지만, 7나노 이하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TSMC와 '유이'한 생산 업체였던 만큼 지나치게 저평가된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나 3나노 '게이트올라라운드(GAA)'를 먼저 도입하면서 기술력도 크게 끌어올렸지만 여전히 외면받는 데에는 기술력 문제만이 아니라는 분석도

외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흔들리지 않는 기술 중심 전략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지난해 역대급 저조한 실적에서도 연구 개발비를 오히려 28조3397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가까이 늘렸다. 메모리와 HBM은 물론 차세대 파운드리 공정 개발 비중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는 있다. 승부처로 삼은 2나노 GAA에서 일본 AI 기업에 수주에 성공했고, 퀄컴 등도 다시 삼성전자 수주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H

BM을 넘어 CXL 등 새로운 메모리 개발에도 한창, D램 미세 공정 기술에서는 '초격차' 전략도 구체화했다는 전언이다.

파운드리에서는 실제 수주 여부가 관건,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삼성전자에 비판적이었던 해외 매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3나노 GAA에서도 TSMC에 비견할만한 수준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AI 반도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TSMC 생산 능력이 모 든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게 되는 수준, 선제적으로 클린룸을 확보하는 '웰퍼스트' 전략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도 크다. /김재용 기자 juk@

▶▶ 1면 '4월 전세계 오가노이드'서 계속

'유럽 바이오 테크계의 거물'로 꼽히는 안드레 거스 대표도 참석한다. 그는 세계 최초의 동물 대체 시험 플랫폼 랩다 바이오로직스를 설립했으며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를 첫 파트너사로 선택한 바 있다.

ODC조직위원회의 주축인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오가노이드의 활용 관련 연구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18년도부터 매년 오가노이드 컨퍼런스를 주최해 왔다.

작년에 열린 ODC23은 연구자·기업·정부기관 및 22개 후원사가 함께했고, 총 700명 이상이 참석하여 대표적인 오가노이드 국제 컨퍼런스로 발전한 바 있다. /이세경 기자

2023년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기술의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채택되고, 전세계에서 동물 시험을 대체할 시험법으로 오가노이드가 떠오르면서 이번 행사에는 1200여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인원이 몰릴 전망이다.

ODC조직위원회는 "매년 ODC 개최를 진행하며 연구개발에만 머무르지 않고 오가노이드를 접목한 상용화 사례, 오가노이드 연구개발사와의 협력, 유관 분야와의 융합 등 다양한 측면으로 확장을 모색해 왔다"며 "세계를 대표하는 오가노이드 개발자들의 모임으로서 거듭남과 동시에 우리의 오가노이드 기술력이 글로벌에서도 부족함이 없음을 증명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세경 기자

연봉 5000만원 차주, 주담대 한도 2000만원 줄어들어

(4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스트레스 DSR 1단계 시행

DSR에 일정수준 가산금리 부과 3단계로 적용... 내년 100% 예정 금융위 “대출 위축 없도록 관리”

26일부터 은행권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함에 따라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 주택담보대출액이 2000만원가량(40년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1억원인 차주(30년만기 금리 5.04%·분할상환)는 3000만원이 줄 전망이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1100조원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스트레스 DSR’을 통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제도가 도입되면서 변동금리·혼합금리·주기형금리로 대출을 받는 차주들의 대출 한도는 수천만원씩 줄어든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26일부터 시행한다.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오피스텔 포함) 가계대출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26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되면서 차주들의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서울 시내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뉴시스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11월) 금리 간 차이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1.5%)과 상한(3.0%)이 부여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연 2회(6월·12월) 산정한다.

변동금리에는 가산금리가 100%, 혼합금리(5~9년 고정 후 변동금리 전환)는 최대 6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5%, 가산금리가 3%라고 하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때 DSR 산정시 금리는 8%(5%+3%)다. 혼합금리로 받을 경우 가산금리의 60%인 1.8%가 더해져 6.8%(5%+1.8%)가 적용된다.

주기형 대출은 가장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금리변동주기가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입으로 대출한도 축소 부담이 과도해질 것이란 우려를 고려해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한다. 이후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1억원인 차주가 30년만기 주담대(금리 5.04%·분할상환)를 받는다고 했을 때, 기존 대출한도는 6억6000만원(DSR 40% 적용)이지만 오는 26일부터는 3000만원(-4%) 줄고, 하반기에는 6000만원(-9%)이 줄어든 6억이다. 스트레스 DSR 100%가 적용되는 내년에는 기존 6억6000만원에서 5억6000만원으로 1억원(-16%) 줄어든다.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DSR 시행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10개월 연속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가계 빚 관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월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잔액

은 1098조4000억원으로 지난 1월 한달 새 3조4000억원 늘어 전달(3조1000억원)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또한 지난 1월말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금융상품 신청이 시작되면서 주담대 잔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계대출 옥죄기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스트레스 DSR 제도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제도 시행 후 과도한 대출 위축이 발생하지 않게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스트레스 DSR 제도는 2단계(7월1일~12월31일), 3단계(2025년1월1일 이후) 순으로 강화돼 대출 한도 축소 폭이 커진다.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이 1단계 25%에서 2단계 50%, 3단계 10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고금리에 민간소비 위축 ‘3040·중상위층’ 직격탄

고물가·고금리에 소비회복세 약화 ‘예금·채권 늘리고 대출 등 부채 줄여’

높은 수준의 금리가 민간소비를 20% 이상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에 비해 대출이 많은 30·40대와 소득 중상위층이 금리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아 소비가 급격히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경제전망 핵심이슈: 가계별 금리익스포저를 감안한 금리상승의 소비영향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2년말부터 고물가 및 고금리의 영향으로 소비회복세가 약화되고 있다.

2022년 한은은 기준금리를 7차례 인상했다. 2022년 1월 기준금리는 1.00%에서 2022년 11월 3.25%로 2.25%포인트(p) 올랐다. 소비자물가도 전년 대비 평균 5.1% 높다.

◆ 금리인상에 소비감소

한은은 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지며 가계가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는 ‘기간간 대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크게 상승한 가계 순저축률은 서서히 하락하고 있지만,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동재 조사국 거시분석팀 과장은 “고금리로 가계는 예금, 채권 등 이자부자산을 크게 늘리고, 대출금 등 이자부

부채는 줄이고 있다”며 “이 같은 움직임이 민간소비를 약화시키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간소비는 취약층보다 금리상승시 이득보다 손해를 더 많이 보는 계층(금리상승 손해층)에서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금리상승 손해층은 전체 계층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69%)이 가장 많았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51%)가 많았으며, 부채수준이 높았다.

정 과장은 “금리상승 손해층은 우리나라의 30·40대와 소득 4·7분위인 중산층인 경우가 많았다”며 “이들의 경우 소비상위층(소비 6~10분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의 소비회복이 더디지면서 우리나라 소비 부진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한은은 취약층의 경우 금리인상에 따른 소비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취약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소득이기 때문에 자산의 비중이 적고,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마저 낮다. 금리상승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적으로 적어 소비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 과장은 “저소득 취약부문의 소비는 금리상승보다는 고물가 및 소득여건 둔화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안전하기로, 건강하기로, 사랑하기로

약속된 플레이

약속된 플레이를 펼치면
약속된 행복이 찾아오니

약속하길 잘했다!

함께, 약속 DB손해보험

삼성전자,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링’ 첫 공개

AI 모바일·네트워크 생태계 소개

갤럭시S24 등 전시관서 체험 가능
갤럭시북4 시리즈와 연결성 뽐내
개인화된 건강 가이드 기능 추가
차세대 네트워크 솔루션도 선보

삼성전자가 전세계 통신 시장에 높은 AI 경쟁력을 자랑한다. 모바일 시장을 혁신한 갤럭시AI는 물론, 새로운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링과 AI 네트워크 기술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삼성전자는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콘그레스(MWC) 2024’에 참가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갤럭시AI로 시작한 새로운 모바일 경험과 함께 차세대 네트워크 혁신 기술, 그리고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인 갤럭시링도 처음으로 공개하며 앞세운 광범위한 생태계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우선 삼성전자는 지난달 성공적으로 출시해 ‘역대급’ 판매 성적을 기록 중인 갤럭시S24를 비롯해 갤럭시AI를 확대 적용 예정인 갤럭시S9와 갤럭시S23 등을 선보이고 다양한 AI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린피아 전시장에 528평 규모 전시관에서다.

갤럭시AI 조형물이 입구에 섰으며, ‘실시간 통역 공간’을 시작으로 ‘서클 투 서치’와 ‘노트 어시스트’, ‘생성형 편집’과 함께 어두운 콘서트장 콘서트 공간에서는 프로비주얼 엔진으로 성능을 대폭 높인 ‘나이토그래피’ 등 대표적인 기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갤럭시북4 시리즈와 연결성도 보여 준다. 갤럭시S24시리즈에서 녹음한 음성 텍스트로 변환해 바로 갤럭시북4로 바로 전송하고 편집하고 저장된 연락처를 검색할 수 있는 등이다.

삼성전자 갤럭시S24는 출시 직후 폭발적인 판매를 기록하며 시리즈 중 가장 많은 수준, 3500만대 전후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최초 ‘하



삼성전자 MWC2024 전시관

이브리드AI’인 갤럭시AI 덕분, 글로벌 모바일 업계도 애플 ‘온디바이스 AI’ 탑재에 나서면서 전체 스마트폰 시장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AI 성공에 이어 웨어러블 시장도 혁신에 도전한다. 지난 언팩에서 처음 공개했던 갤럭시링 실물을 처음으로 전시한다.

갤럭시링은 반지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로, 언제 어디서든 불편없이 착용할 수 있는데다가 더 세밀하게 건강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블랙과 골드, 실버 등 3개 색상으로 9개 사이즈로 제작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링과 함께 새로운 헬스기능도 추가하며 생태계 확산에 힘을 더한다. 개인화된 건강 가이드를 제공하는 ‘마이 바이탈리티 스코어’와 목표를 독려하는 ‘부스터 카드’ 등이다.

스마트싱스도 함께한다. 갤럭시 워치와 TV를 연동해 삼성헬스 콘텐츠로 운동을 하거나 투약 시간 알람과 조명을 켜는 등 시나리오도 소개한다.

삼성전자 AI 기술은 네트워크 사업에도 활용된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AI와 소프트웨어 기반 차세대 네트워크 솔루션을 소개하며 네트워크 사업 확대 기회도 모

색한다. AI 자동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원 배포 및 운영까지 직접 하는 ‘네트워크 자동화 솔루션’과 AI 기반 에너지 자동 절감 솔루션, 5G 기지국 성능과 효율을 높이는 차세대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이다. 5G 다중 입출력 기지국과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결합해 소모 전력을 30% 절감하면서 데이터 처리용량을 늘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까지 선보인다.

이 밖에도 ▲자체 개발한 고성능 신규 네트워크 칩셋 라인업 ▲5G 어드밴스드(5G Advanced) 규격을 지원하는 최신 기지국 등 고성능·소형·저전력의 다양한 기지국 라인업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업한 클라우드(Cloud) 기반 End-to-End 네트워크 솔루션 등을 선보인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지난 언팩에서 처음 공개한 삼성전자 갤럭시 링

SKT, ‘텔코 AI 세상’ 비전 제시

GTAA 협력 구체화해 선배
거대언어모델 앞세운 혁신
오픈랜 최적화 기술 알리기도

SK텔레콤이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 MWC2024에서 ‘텔코(통신사) AI 세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또 세계 통신사 연합 협력을 확대하고 AI 활동 무대를 글로벌로 본격 확장한다.

SK텔레콤은 이달 26~29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2024에 참여한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세계 텔코 연합인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GTAA)’ 협력을 구체화하고 실생활 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보인다.

SK텔레콤은 피라 그란비아 전시장 제3홀에 전시 부스를 꾸렸다. 3홀은 MWC 관람객이 가장 많이 찾은 핵심 전시관으로 글로벌 경쟁한 ICT 기업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다. 올해는 삼성, 인텔, MS, 도이치텔레콤, 퀄컴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자리 잡았다.

SK텔레콤은 ‘AI, 변화의 시작점’이란 큰 주제를 바탕으로 텔코가 만들어갈 AI 기술들을 전 세계에 소개할 계획이다.

우선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GTAA)’의 협력을 구체화해 선보인다. 지난해 7월 SK텔레콤은 도이치텔레콤(DT)과 e&, 싱텔 등과 함께 GTA A를 발족하고 AI 사업 협력의 물꼬를 텄다. 같은 해 10월엔 DT와 통신사향(向) 특화 LLM을 공동 개발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SK텔레콤은 이번 MWC 무대에서 ‘텔코 LLM’을 앞세운 통신사발 AI 혁신을 소개한다. 기존 통신업의 로직과 지식을 학습한 특화 LLM을 개발해 신규 서비스는 물론 고객 관리·마케팅 등 영역에도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AI 기반 6G 시뮬레이터와 AI를 활용한 오픈랜 최적화 기술 등을 알리는 공간도 마련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KT, 글로벌 통신사 수장 만나 현안 논의

김영섭 대표, GSMA CEO 미팅 참석

김영섭 KT 대표가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 ‘모바일월드콘그레스(MWC 2024)’에서 글로벌 통신사 수장들을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KT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오는 26일(현지시간)부터 29일까지 열리는 MWC 2024에 참여한다고 25일 밝혔다. 김영섭 대표는 한국 통신사 대표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CEO 보드 미팅에 참석한다. 김 대표는 MWC를 주관하는 GSMA의 국내 유일 이사회 멤버이다.

오승필 기술혁신부부장(CTO), 김광동 CR실장, 이상기 전략실 글로벌사업개발담당 상무 등 주요 임원들 또한 각각 기술, 정책, 전략 워킹 그룹에 참

가해 6G와 차세대 네트워크, 글로벌 정책 이슈, 거대언어모델(LLM)과 양자통신 산업 등 미래 통신을 위한 세부 이젠다에 대해 토의한다.

오 부부장의 경우 27일 오전 9시부터 MWC 현장에서 열리는 ‘CTO GTI 서밋 키노트’ 단상에도 오른다. 그는 K T CTO로서 미래 산업을 견인하기 위한 AI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는 등 행사 기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통신 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KT는 올해 MWC에서 ‘미래를 만드는 디지털 혁신 파트너’라는 주제로 ‘넥스트 5G’와 ‘AI 라이프’ 등 2개 테마 존으로 전시관을 꾸미고,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과 AI 혁신 기술을 통해 달라질 미래상을 선보인다. /구남영 기자

도민과 함께하는 경남개발공사

지속가능
ESG 경영으로
도민 행복을
추구하고,
미래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kt

2024 커리어의 시작

디지털 혁신은 당신으로부터, KT와 함께

대한민국 통신과 IT 산업을 이끌어온 KT가
보다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갈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 1차 : 2024년 2월 16일(금) ~ 3월 3일(일) ※ 연중 수시 공고 오픈 예정

[모집 분야] AI, Cloud, Data, IT

[주요 직무] 솔루션 아키텍트, 플랫폼 엔지니어, SW개발, 분석/설계,
IT프로젝트 PM/PL, IT컨설팅, IT기술영업/제안 및 수행

[모집 인원] 사원급부터 임원급까지 전 직급 대상 최대 1,000명 규모

[접수 방법] KT 채용 홈페이지 (<https://recruit.kt.com>) 온라인 지원



채용 정보 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마산어시장을 방문해 즉발집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尹, 민생토론회 전국단위로 확대

민생토론회 직후 전통시장 방문 지역균형 발전 의지 이어질 듯

총선 앞두고 與 후보 지원하는 불법 관권·사전선거운동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부처별 업무 보고 형식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바꾼 뒤, 민생토론회가 전국 단위로 확대되고 있다.

연초 수도권에서 시작한 민생토론회는 비수도권 지역의 민심도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뒤 부산, 대전, 울산, 창원 등 모두 비수도권에서 최근 개최됐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직후 지역 전통시장까지 직접 방문하며 바닥 민심을 챙기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 4일을 처음으로 시작된 민생토론회는 지난 22일까지 총 열네 차례

에 걸쳐 진행됐다. 최근 네 차례를 제외하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열 차례의 민생토론회가 진행됐다.

주제도 다양하다. 경제정책 방향을 비롯해 재개발·재건축, 반도체 산업, 교통격차 해소, 일자리, 디지털, 국민 안전, 돌봄, 의료개혁, 미디어 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이 다뤄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처 간 칸막이 철폐 지시 등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하는 정부를 앞세운 만큼 민생 성과를 빠르게 거둬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과 더불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전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냄에 따라 지역별 민생토론회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제22대 총선을 40여일을 앞두고 전국 곳곳을 도는 윤 대통령의 행보에 여당 후보를 지원하는, 사실상 전국

순회 지원 유세를 벌이고 있는 비판도 나왔다.

권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최근 지역 민생토론회를 빙자해 전국을 돌며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말이 좋아 민생토론회지, 정부여당의 총선 공약을 홍보하는 불법적 관권선거, 사전선거운동의 현장"이라며 "윤 대통령은 본인을 여당 선대위원장으로, 정부와 공무원은 여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정도로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당장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불법적인 관권선거, 사전선거운동을 중단하라"며 "선거 중립의지를 국민에게 분명히 밝히고 국민과 법 앞에서 그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野, 내부분열 단속... "민주적 소통과정"

리서치 DNA 이용한 경선조사 안 해 단수공천 17곳·2인 경선 2곳 발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천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5일 7차 공천심사를 발표하며 비이재명계 의원은 2인 경선을 치르게 했다.

민주당은 25일 내부 분열 단속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경선 조사업체로 선정된 리서치DNA(구 한 국민리서치)를 이용해 경선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당은 "리서치DNA는 조사에 문제는 전혀 없으나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으로 민주당에 부담이 되기에 경선 조사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당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비명계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을 제외한 적합도 조사를 돌렸다고 의심을 받는 업체이다.

이를 인지한 비명계 의원들은 의원 총회 등에서 당 지도부에 이에 대해 항의했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있는 업체는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당 지도부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가 자신과 대치 상황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자 입장을 내고 "일부 언론에서 선정적인 제목으로 당의 공천에 마치 큰 갈등과 내분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강병원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구에 출마한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이 경선을

치르게 되자, 당 지도부에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단수 공천 17곳과, 2인 경선 4곳을 발표하며 공천 심사에 속도를 냈다. 2인 경선은 광주 서구갑에 송갑석 의원과 조인철 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대전 대덕구에 박정현 지명직 최고위원과 박영순 의원, 경기 고양시정에 김영환 전 도의원과 이용우 의원, 충북 청주시흥덕구에 도종환 의원과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이 맞붙는다.

송 의원은 현역 하위평가 20%에 포함됐고 박 의원은 10%에 포함됐다. 이용우 의원과 도종환 의원은 비명계 의원들과 함께 의원모임 '원칙과상식'의 탈당 전 이 대표에게 통합 행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낸 적 있다.

반면, 선출직 최고위원인 정청래(서울 마포을)·서영교(서울 중랑을) 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았다. 인천에선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천 계양갑)가 단수를 받았고 수원 갑-병에선 각각 김승원·백해련·김영진 의원이 본선에 진출했다. 경기 안양 만안구·동안 갑·동안을은 각각 강득구·민병덕·이재정 의원이 공천을 받고 경기 성남시수정구에선 김태년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이외에 경기 지역에선 한준호(고양을), 김용민(남양주병), 문정복(시흥갑), 권철승(화성병) 의원이 경선 없이 공천을 받았다.

당의 정책위의장인 이개호 의원은 전남 담양군합평면공영광군장성군에서, 제주 제주시을과 서귀포시에선 각각 현역인 김한규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재신임을 받았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정우택·박덕흠 등 '지역구' 현역 생환

국민의힘, 19개 지역 1차 경선 비례대표 의원들과 희비 교차

국민의힘이 25일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울 양천 갑 등 19개 지역에서 실시한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경선 결과 발표 지역은 총 19곳으로 ▲서울 6곳 ▲경기 3곳 ▲인천 2곳 ▲충북 5곳 ▲충남 2곳 ▲제주 1곳 등이다. 해당 지역은 모두 1권역(서울 일부·인천·경기·호남·충청·제주)으로 당원 20%, 일반국민 80% 여론조사를 반영해 결과를 결정한다. 청년·정치신인에는 가점, 정계·탈당 등에는 감점을 적용했다.

이번 경선 결과 현역의원은 모두 생환했다. '돈봉투 의혹'을 받았던 정우택 의원은 충북 청주상당에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맞붙은 결과 공천이 확정됐다. 또 충남 보령서천이 지역구인 장동혁 사무총장,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지역구인 박덕흠 의원은 모두 경선에 승리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경선에서 전·현직의원에겐 패했다. 서울 동대문 갑에 나선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김영우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탈락했다. 충북 제천단양 엄태영 의원과 최지

우 전 대통령실 행정관, 충북 충주 이종배 의원과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경선에서 엄태영·이종배 의원 등이 승리했다.

이번 경선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희비가 교차된 것을 알 수 있다.

경기 여주·양평에서는 지난해 의원직을 상실했던 김선교 전 의원이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을 꺾고 공천이 확정됐다. 김 전 의원은 '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5월 대법원 판결에서 본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원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이 상실된 바 있다.

현 지도부 소속 영입인재와 전·현직 지도부가 3차 경선을 벌인 서울 양천갑은 구자룡 비상대책위원과 조수진 의원(비례대표)이 결선을 다시 치른다. 정미경 전 의원은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외에도 서울 성북갑(이종철), 서울 성북을(이상규), 서울 양천을(오경훈), 서울 금천(강성만), 인천 남동을(신재경), 인천 부평갑(유제홍), 경기 의정부을(의형섭), 충북 증평진천음성(경대수), 충남 아산을(전만권), 제주 서귀포(고기철) 등도 경선 결과 후보가 확정됐다. 경기 광주을은 조역동·황명주 예비후보가 결선을 치른다.

/서예진 기자

쌍특검법 재표결, 본회의서 부결 전망

與 공천 탈락자 이탈 노렸지만 17명 이상 반란표 나오기 어려워

2월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이번 주에 예정된 가운데, 여야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추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 문제로 맞붙을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지역구 의원이 나오지 않으면서 쌍특검법은 부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9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결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할 생각"이라며 "추가조작 범죄에 대통령 부인이 연루되고, 사법 정의를 팔아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의 중대성에 비추어 봤을 때 진상규명과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쌍특검법은 앞서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의결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은 재적의

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즉, 쌍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297명)이 모두 출석했을 경우 198표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다만 헌법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한 재표결 시한을 정해두지 않았다. 이전에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관례상 바로 다음 본회의에 올린 셈이다.

실제로 앞서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에 부쳐진 방송3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개정안·양곡관리법 개정안·간호법 개정안 등은 재의요구 시점부터 최장 2주 이내 재의결에 부쳐졌다.

그러나 쌍특검법은 50일이 넘게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초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됐던 지난달 9일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반면 민주당은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최대한 미뤘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표결을 해야, 공천에서 탈락한 이들이 이탈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쌍특검법이 통과하려면 필요한의석

수(198석)를 채우려면 국민의힘과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중 이탈표가 최소 17표여야 한다. 구속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면 민주당·녹색정의당·개혁신당·새진보연합·새로운미래 등 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합치면 181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17명 이상의 반란표가 나오기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공천 과정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2명이 컷오프됐다. 반발의 여파가 큰 지역구 의원은 단 한 명도 컷오프되지 않았다. 게다가 민주당은 최근 당내 공천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라 '표 단속'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쌍특검법 재표결을 꺼내들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물론 재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의 표 향방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불만을 가진 몇몇 의원들이 당 기조에서 벗어나 표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이 부결되면 '김건희 리스크'를 전면에 내세워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 기자 syj@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우리 소상공인, 더 날개 돋칠 힘

우리 청년, 더 어깨 펼 힘

우리 자영업자, 더 오래 걸을 힘

우리 모두에 우리의 힘을

대한민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에게
우리은행이 힘이 되겠습니다



호가 뛰고 매물 실종... 서울 집값 하락에도 “급할 것 없다”

GTX 노선 따라가보니

서울역

교통호재에 매매호가만 올라
급매물 사라지고 거래절벽
서울역센트럴자이 ‘신고가’

정부가 지난 1월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연장이 추진되면서 주요 역을 중심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메트로신문이 GTX 역을 찾아가 봤다. (편집자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는 서울과 거리가 먼 경기도 파주 운정, 동탄, 평택 등 외곽 지역에서 호재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찾아간 서울 중구 만리동 ‘서울역센트럴자이’ 아파트. 단지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정부의 GTX-A 노선 연장 발표 이후 집주인이 매매 호가를 소폭 올려 매물을 내놨지만,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하철 1·4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가 지나가는 서울역 15번 출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서울역센트럴자이는 지난 2017년 8월 입주를 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공사 현장 모습.



서울 중구 만리동에 위치한 ‘서울역센트럴자이’.

작했다. 만리2구역에 재개발해 지은 아파트다. 14개동, 전용면적 59~89㎡, 총 1341세대의 대단지다.

단지 인근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내달 GTX-A의 일부 노선이 개통되고, 9월에 GTX 서울역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졌다”면서 “북부역세권 복합개발 건축 허가와 도심재개발, 철도 지하화 등 호재로 집주인들의 매매 희망가격은 더욱 높아졌고, 급매물은 실종해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열어 GTX 전체 노선을 포함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2기 GTX 시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GTX-A노선을 기

존 파주 운정~화성 동탄 노선을 연장해 평택 지제(20.9km)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GTX 사업 최초로 A노선(수서~동탄) 일부 구간을 내달 말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 개통을 완료할 계획이다.

단지 인근 C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서울 지역의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나오지만, 집주인들은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라면서 “급매물을 문의하는 수요자들의 방문과 전화가 늘었지만, 공급이 전혀 없는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2월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하락했다. 전주(-0.03%)와 같은 하락세를 보이며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단지

별 혼조세를 보이며 전주에 포함으로 전환한 중구의 경우 0.02% 하락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역센트럴자이’는 이달 전용면적 59㎡가 13억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0월 거래가격(12억8000만원) 보다 2000만원 오르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전용면적 59㎡는 지난달 16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이전 최고가(2022년 1월·17억원)에 근접한 가격이다.

서울역센트럴자이와 함께 인근 아파트 3대장으로 불리는 ‘서울역한라비발디센트럴’에선 2021년 5월 이후 매매거래 사례가 없었다. ‘LIG서울역리가’의 경우 이달 전용면적 84㎡가 13억49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이전 최고가(2023년 10월·14억5000만원) 대비 6.97%(1억1000만원) 떨어진 가격으로, 급매물이 소진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카드 News

하나카드 제8기 고객패널 발대 상품 체험·보완 개선

하나카드가 소비자 패널을 구축하고 개선 사항을 수집한다.

◆ 역대 최고 지원율 기록

하나카드는 제8기 고객패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고객 패널은 지난 2017년부터 소비자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로 8기 패널을 맞이했다. 역대 가장 많은 지원율을 기록하면서 치열한 심사를 거쳤다는 설명이다.

총 15명을 선정했다.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령, 직업, 거주지를 다채롭게 선발했다. 이번 8기 고객패널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선할 계획이다.

발대식에서 자기소개를 하던 한 패널은 “모바일 플랫폼 개발 등에 대한 업무를 바탕으로 하나카드의 앱·웹 등 디지털 채널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여 손님 친화적인 채널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다.

이어 하나카드 관계자는 “고객 패널분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개선사항에 대해 적극 경청하고 내부 프로세스에 반영하는 등 손님에게 먼저 다가가는 하나카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B국민은행, 캄보디아 통합 상업은행 공식 출범

프놈펜서 ‘KB프라삭은행’ 오픈 양종희 회장 “최고의 경험 선사”

KB프라삭은행이 공식 출범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3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KB프라삭은행’의 그랜드 오픈 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랜드 오픈 행사는 두 개의 국가, 금융회사, 문화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담은 ‘투 월드 인투 원(Two Worlds into One)’을 메인 테마로 개최됐다. 짜아 세레이 캄보디아 중앙은행 총재와 짜룽 보통랑세이 주한캄보디아 대사,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앞줄 왼쪽서 여덟번째), 이재근 KB국민은행장(열한번째), 양희은 KB국민은행장(열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금융지주 글로벌사업부부장, 강남재 KB국민은행 글로벌사업그룹 대표 등 KB금융그룹의 주요 경영진도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양 회장은 개회사에서 “캄보디아 내 지역 간 균형 발전 그리고 상생과 공존

의 레시피로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주고 함께 성장하겠다”며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최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캄보디아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임직원 모두는 캄보디아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고,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선사할 수 있는 은행이 되겠다는 의미에서 KB프라삭은행의 새로운 슬로건인 ‘당신의 평생 금융 파트너(Your Lifetime Financial Partner)’를 외치며 각 오를 다졌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프라삭은행은 캄보디아 4위 규모의 상업은행으로 190여 개의 영업 네트워크와 5000여명이 넘는 영업 인력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기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저원가성 예금 확보와 QR 페이먼트 시장점유율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선두은행과의 격차를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KB의 선진 디지털 역량을 내재화해 캄보디아 금융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발대식에서 고객패널들이 함께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카드

신한카드-롯데렌탈 전략적 제휴 맺고 대여시장 협업 확대

신한카드가 롯데렌탈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대여 시장 협업을 통해 미래 수익 확보에 나선다.

◆ 금융·정비 협력 추진키로

신한카드는 롯데렌탈과 전략적 업무 협약을 진행하고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롯데렌탈에서 카드 결제 및 금융 상품 이용 시, 신한카드를 통해 우선 진행한다. 각사의 인프라를 활용해 렌터카 이용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협력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계약으로 카드 결제 가맹점 수수료율 확보하고, 금융 상품의 취급액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롯데렌탈이 중고차 사업을 시작하면 신한카드 금융 상품 이용 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신한금융 ‘신한 아너스 봉사클럽’ 시상식

신한금융그룹이 ‘신한아너스봉사클럽’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7월부터 ‘신한아너스 봉사클럽’ 제도를 신설해 임직원들의 연간 봉사활동 시간과 횟수에 따라 등급(골드, 실버, 브론즈)을 정하고, 등급별 포상을 통해 임직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이 참석해 ‘신한아너스 봉사클럽’의 브론즈 등급 임직원 총 47명의 지난해 봉사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진 회장은 이들에게 상패와 함께 최대 500만원의 지정 단체 기부권을 수여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신한 아너스 봉사클럽’ 시상식에 참석한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가운데)이 수상한 임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조선업계, '빙커선' 적극 투자... LNG 충전사업 속도낸다

‘LNG빙커선’ 新성장동력 주목
직접충전 통해 수익성 극대화
극저온 유지 등 기술장벽 관건

액화천연가스(LNG)추진선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LNG빙커선’이 조선업계의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조선업계는 LNG빙커링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하며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25일 DNV(노르웨이선급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연간 LNG빙커링용 소비량은 지난 2021년 171만톤에서 2026년 858만톤으로 연평균 38.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해운 전문지트레이드윈즈는 2026년까지 최대 30척의 LNG빙커선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LNG빙커링선은 해상에서 LNG를 바로 충전해 줄 수 있는 선박이다. 같은 충전 방식은 STS(Ship To Ship)라고 불리며 기존 항만시설을 개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건조와 시운전 사이의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LNG추진선 증가



LNG 빙커링선 블루웨일호가 자동차운반선에 LNG연료를 빙커링하고 있다.

추세에 따라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르웨이선급협회는 LNG 연료 추진선이 2030년에 5000척, 2040년에 8800척으로 증가할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LNG빙커링의 기술장벽은 다소 높은 편이다. 기존 선박 연료로 활용되던 벙커C유와 달리 영하 163도의 극저온 상태를 유지하며 연료 공급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적합한 시설과 기자재, 운영 시스템이 필요해 조선업계는 고도의 기술을 갖추는 데 매진 중이다.

특히 삼성중공업은 국내 조선사가운데 처음으로 LNG빙커링 사업에 진출했다. 회사는 LNG빙커링을 위한 다목적 바지선을 지난 2023년 말 건조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직접 선박에 LNG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해 수익성 극대화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선박명은 ‘그린 누리호’로 6000㎥(세계급미터) 용량의 LNG 탱크 1기와 350㎥ 용량의 액화 질소 탱크 2기로 구성된다. 앞으로 선박을 선주에 인도하기 전 마지막 단계인 시운전까지 조선소 내에서 자급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현대미포조선은 지난 2018년 7500㎥급 LNG 빙커링선을 처음으로 인도한 이래로 5척을 수주했다. HD현대중공업은 2023년 5월 ‘국산 화물창’이 적용된 LNG빙커링선 ‘블루웨일’을 건조한 바 있다. 블루웨일호 운항을 통해 해상에서 탱크로리 트럭 250대 분량의 LNG를 선박에 직접 공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HD한국조선해양은 울산항만공사(UPA)와 지난 2023년 6월 항만·조선 동반 성장 및 친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빙커링 기술협력 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화오션은 LNG빙커링선을 수주하지 않았지만 기술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20년 11월 업계 최초로 조선소 안벽에서 STS 방식으로 LNG를 선적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또한 증발가스 처리 기술도 세계 최초로 개발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빙커링 선박이 조선소에 와서 선적 작업을 하게 되면 기존 방식에 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삼성·LG ‘세탁건조기’ 대전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선배

삼성전자도 건조기가 2kg 더 큰 세탁건조기 올인원 제품을 내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4일부터 ‘비스포크 AI 콤보’를 판매 중이다.

비스포크AI콤보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제품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가전이다. 히터 방식 콘덴싱 콤보가 아닌 인버터 히트펌프 기술로 건조 성능을 혁신했다. 건조 최고 온도가 60도를 넘지 않아 옷감 손상 염려도 최소화한다. 설치 공간도 약 40% 절약해준다.

용량은 세탁기 25kg와 건조기 15kg으로, LG전자 시그니처 세탁건조기보다 건조기 크기가 2kg 크다. 이불은 물론 3kg 수준 세탁물을 세탁과 건조까지 99분만에 해결할 수 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김재용 기자

산업 곳곳 첨단화 물결... AI·AR 등 기술확보 경쟁 치열

생산성·안정성 강화 등 긍정적 변화
주요 기업, 전략적 협력 등 생태계 확장

산업 현장에 IT 기술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생산성 향상, 안정성 강화, 고객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IT 기술 도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며 제조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의 물결이 일고 있다. 25일 시장조사 전문 기관 VMR이 발표한 ‘전 세계 제조 산업의 AI시장 전망 2023~2030년’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산업의 AI(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지난 2022년 15억6000만 달러로 평가됐다. 지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47.8%로 성장해 2030년에는 523억7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HD현대는 글로벌 IT기업인 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내부에 위치한 VR 도장 교육센터에서 새롭게 개발된 ‘RealBLAST’를 통해 VR 블라스팅 직무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한화오션

글 클라우드와 손잡고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에 나섰다. 이를 통해 조선 사업과 건설기계 사업 등 핵심 비즈니스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해 디지털 혁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양사는 산업 특화 AI 솔루션 및 서비스 개발, 고객 디지털 경험 향상을 위한 AI 기반 플랫폼 개발 등도 협력할 방침이다.

AR(증강현실)과 VR(가상현실)의

이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한화오션은 VR을 활용해 ‘리얼 블라스트’를 개발했다. 블라스팅은 고경도 소재를 철판에 고압으로 분사시켜 표면을 정리하는 작업이다. 도료를 칠하기 전 녹을 제거하는 등의 업무가 대표적이다. 리얼 블라스트를 통해 블록 현장을 재현한 가상공간에서 훈련이 가능해졌으며, 실제 블라스팅에 사용하는 장비로 압축공기를 분사할 수 있다.

SK에너지는 PTC코리아와 협업해 스마트 플랜트에 IoT, AR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플랜트 솔루션’을 사업화했다. 이를 국내 에너지·화학산업 현장에 도입해 기존의 작업보다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SK에너지는 증강현실 기반 스마트비계 시스템을 현장에 도입해 가상으로 비계를 쌓아 수작업에 비해 오류를 개선하는 등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AR 기술을 활용한 배

관·설계 및 품질검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IT 기술 도입은 영업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회사 중장비의 80%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는데, 해외 딜러에게 VR 기술을 새 제품을 알리고 원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도구로 적용 중이다. 회사는 AR 기술로 건설장비 고장을 진단하는 ‘AR 가이드스’를 활용한 고객 사후관리(AS)에도 적극적이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건설장비를 촬영하면 자동으로 고장을 진단하고 수리 메뉴얼을 사안별로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산업현장에 IT 기술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도입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라며 “IT 기술은 육안으로 점검하기 어렵거나 접근이 위험한 시설들에 사용되는 등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말했다.

/차현정 기자



LG 시그니처 세탁건조기

LG전자

“꿈의 가전” 확인해 보세요

LG전자가 ‘꿈의 가전’ LG시그니처 세탁건조기를 전국 매장에서 직접 소개한다.

LG전자는 22일부터 전국 99개 매장에 LG 시그니처 세탁건조기를 전시했다고 25일 밝혔다.

LG 시그니처 세탁건조기는 지난해 처음 선보인 제품으로, 세탁과 건조기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꿈의 가전’으로 불린다. 지난 22일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

LG전자는 베스트샵 강남본점과 강서본점, 일산본점 등을 비롯해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과 신세계백화점 본점, 롯데백화점 잠실점 등 백화점 매장에 LG 시그니처 세탁건조기를 판매하고 있다.

LG전자는 ‘기술의 미학’ 철학을 반영한 스테인리스 소재 ‘타임리스 디자인’에 미니멀리즘을 적용한 외관과 함께 스마트 편의기능을 앞세웠다. LG씽큐로 미세플라스틱 케어 코스와 종료 후 세탁물 케어 등 기능을 사용하고 업그레이드도 제공한다.

/김재용 기자

LGD, 투명 OLED ‘에코 마크’ 인증

자원 효율성·유해물질 저감 고평가

LGD디스플레이가 투명 OLED 패널까지 친환경 가치를 인정받았다.

LGD디스플레이는 최근 글로벌 인증 기관 SGS에서 투명 OLED로 ‘에코 마크’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에코마크는 글로벌 환경 규제를 준수하고 생산부터 사용, 폐기까지 제품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친환경 평가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부여한다.

/김재용 기자 juk@

LGD디스플레이는 유일하게 투명 OLED를 양산 중으로, 업계 처음으로 에코마크 인증을 획득하며 투명 OLED 친환경성도 입증했다. 전체 부품 중 재활용 소재 사용률을 최대 23%로 높이고 유럽연합(EU) 제정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에 따라 200여종 고위험성 우려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등 자원 효율성과 유해물질 저감 등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대차그룹-런던대, CSST 개소식 개최

(지속가능한 구조변화 연구소)

아프리카 발전 방안 연구

현대자동차그룹이 장하준 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들과 함께 아프리카 발전 방안을 연구한다.

현대차그룹은 2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학부(SOAS)’와 ‘지속 가능한 구조변화 연구소(CSST)’ 개소식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SOAS는 런던대 17개 단과대학 중 하나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개발

도상국 연구에 특화됐다.

새로 문을 연 CSST는 아프리카 지속가능성 성장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연구한다. SOAS에 있는 장하준 교수 주도로 ▲공급망 ▲재생에너지 ▲광물자원 ▲인프라의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 사회와 경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민간 기업과 정부 역할 비전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용 기자

단통법 시행령 개정 '갑론을박'

“지원금 경쟁 확대” vs “시장 불균형 초래”

단통법에 예외기준 신설 추진
신규, 기변, 번호이동 등
통신사 자율 보조금 책정 가능
단말기 구입비 절감 기대

이미 포화된 시장 효과 미지수
알뜰폰 위축 등 불균형 우려도

정부가 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을 허용하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 제안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통신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전망과 달리 이미 이통3사의 과점체제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소비자 혜택이 크지 않을 것이라 평가와 함께 시장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통통신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제3조의 예외 기준을 새로 만드는 개정안을 보고했다. 단통법 시행령 제3조의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단서에 예외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이나 요금구간에 따른 지원율을 다르게 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신규, 기변, 번호이동 등 통신사가 가입 유형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정할 수 있다.

이에 통신사들이 다른 통신사의 고객을 자사로 가져오는 번호이동 관련



김홍일 방통통신위원장이 지난 7일 정부과천청사 방통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방통통신위원회회를 개최하고 있다. /뉴시스

정책에 보조금이 많이 실을 지 이목이 집중된다.

가입자의 번호이동으로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 다른 통신사가 위약금을 대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가입자들은 통신사와 체결한 약정기간이 끝난 후 통신사를 갈아타는 번호이동에 나섰다. 약정기간 내 번호를 이동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해왔다.

하지만 경쟁 통신사가 새로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위약금을 대신 납부하면 가입자는 통신사를 쉽게 갈아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위약금 대납을 통한 통신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시장 경쟁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업계는 더 이상 마케팅 비용을 지출할 이유가 없어

지면서 통신 3사 과점 체제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 간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비가 절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시행령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소비자 혜택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과거와 달리 이미 과점 체제가 고착화된 시장에서 통신사들은 예전만큼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단통법 시행 전 이동통신 시장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낮은 상황에도

LTE의 등장으로 이통사마다 가입자 유치에 혈안이 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5세대(5G)가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스마트폰 보급률은 이미 100%에 육박하면서 통신 서비스 시장은 포화된 상태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금 경쟁이 촉발된다고 해도, 이통사가 과거만큼 지원금을 확대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다.

또 알뜰폰 시장의 위축으로 시장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 업체가 이통 3사와의 위약금 대납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가입자들이 이통 3사로 대거 이동하면서 이들의 과점체제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이통 3사의 지원금이 확대되면 가입자들은 부담이 덜한 이통 3사로 쏠릴 수 있다"며 "최근 이통 3사의 중저가 요금제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번호이동 지원금까지 확대된다면 알뜰폰 업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단통법 폐지 관련 입법 보고서를 내고 "유통점의 경쟁 요소가 생기고 지원금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반면 지원금 불균형과 소비자 차별, 고가 요금제 집중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한화오션

VLCC 2척 수주
3420억 규모 계약

한화오션이 3년만에 초대형 원유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

한화오션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Very Large Crude-oil Carrier) 2척을 3420억원에 수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16년만의 최고다. 한화오션이 초대형 원유운반선을 수주한 것은 2021년 이후 3년만에 처음이다. 이는 지속적인 고수익 제품위주의 선별 수주전략의 승리로 평가된다.

이들 선박은 거제사업장에서 건조돼 2026년 상/하반기 각각 1척씩 선주측에 인도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계약에는 추가로 계약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돼 있어 향후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

이 선박은 한화오션이 개발한 각종 연료 저감 장치와 최적화된 선형을 적용해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한 친환경 원유운반선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오랜 기간 축적되어 온 차별화된 VLCC 기술력과 건조 경험 그리고 선도적 친환경기술 적용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수익성 위주의 선별수주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SK실트론

7200억 조건부 대출
美 에너지부 승인

SK실트론이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7200억원에 대한 조건부 대출 승인을 받았다.

미국 에너지부의 대출 프로그램 사무소(LPO)는 22일(현지시간) SK실트론CSS에 5억4400만 달러(약 7200억원)의 대출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부의 조건부 대출은 'ATVM'이라는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며 첨단 기술 차량, 부품 및 연비 개선을 위한 각종 재료 등의 제조를 지원한다.

SK실트론CSS는 SK실트론의 미국 자회사이며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필요한 '실리콘 카바이드(SiC-탄화규소)' 웨이퍼를 생산한다. 미국 미시간주 베이스티에 2개의 공장이 있다.

미 에너지부는 SK실트론CSS가 미국 내에서 전기차용 SiC 웨이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대출 승인을 했다. 최근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고품질 SiC 공급이 부족한 만큼 이를 보완하겠다는 의도다.

미 에너지부는 베이스티 시설이 글로벌 상위 5개 SiC 웨이퍼 제조업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현지에 200개의 고급 일자리와 200개의 건설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전기차 판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4배 이상 증가해 450만 대의 전기차가 운행 중이다.

/양성운 기자

‘고령화 시대’ ICT업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관심 쏙

팬데믹 이후 헬스케어 산업 급성장
삼성전자,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 선보인 인허가·규제, 기술 육성 걸림돌

전세계적 추세가 된 고령화와 팬데믹을 기점으로 시작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첨단 ICT 기술을 만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황을 부르고 있다.

UN에 따르면 2022년 11월 세계 총 인구는 80억 명을 넘어섰지만 증가율은 매년 지속 감소하고 있다. 개발도상국까지 퍼지는 저출생 현상과 위생·의료기술로 평균수명 때문이다. 긴 노년기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려는 수요와 팬데믹 이후 불거진 건강에 대한 관심에 많은 기업들이 헬스케어 산업에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다.

25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유래없는 저출생 현상과 고령화 사회를 맞으며 수많은 기업들이 헬스케어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낙점했다. 경계를 넘나들며 많은 업체가 참가한 덕에 하드웨어 기기는 물론 센서 등 첨단 기술까지 함께 발전 중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과거 환자와 초고령 인구 등 사후 케어가 필요한 대상에서 팬데믹을 기점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으로 변화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맞았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시리즈를 착용한 채 잠든 사람의 모습. 삼성전자는 FDA로부터 갤럭시 워치를 활용한 수면 무호흡 기능 측정 의료 기기 허가를 획득했다. /삼성전자

다. PWC 컨설팅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1520억 달러(182조원)로 2027년 5090억 달러(610조원)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2024에서 새로운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 링' 실물을 처음 공개한다. 연내 출시 예정인 갤럭시 링은 반지 안쪽에 생체신호를 감지하는 센서를 탑재해 사용자의 건강지표를 측정하고 운동, 수면보조를 돕는 웨어러블 기기다.

삼성전자는 일찌감치 2012년 갤럭시를 통해 삼성헬스를 낸 후 2018년 갤럭시

시 위치를 2019년 갤럭시 핏을 출시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뛰어들었다.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하는 다양한 객관적 수치 요소를 모바일 헬스케어 솔루션인 삼성헬스를 통해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앞서 22일에도 피트니스 밴드 신제품 '갤럭시 핏3'를 공개했다.

카카오는 이달 1일 카카오헬스케어를 통해 실시간 혈당 관리 서비스 '파스타'를 출시했다. 파스타는 연속혈당측정기(CGM) 센서로 혈당 정보를 수집하고 AI 기반 솔루션을 통해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식사·운동·복약 등 주요 변수를 분석한다. 의료기기인 연속혈당측정기(CGM) 센서와 애플리케이션 '파스타'가 한 세트다.

카카오헬스케어는 카카오가 헬스케어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세운 전문 자회사다. 올해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내년에는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 계획이다.

벤처 스타트업 업체도 일찌감치 헬스케어 산업에 뛰어들어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2012년 설립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라이프시맨틱스는 최근 건강관리 앱 파프리카케어와 바이오기업 세레스에프엔디를 인수하며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ICT 기술 발전에 따른 기업의 사업 확장도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뒷받침도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 접근성 향상은 물론 일상적 관리를 통해 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어 더욱 투자 개발이 활발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의료개혁 주제로 진행한 8차 민생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의 의료산업과 디지털헬스케어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릴 자신이 있다"며 "우리 의료개혁도 글로벌 마켓을 상정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업계에서 평가하는 정부의 움직임은 부족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국내 첫 디지털치료제 '숨즈'는 지난달 1월에서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첫 처방이 이뤄졌다.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치료제와 플랫폼에 대한 신중하고 엄정한 대응은 이해하지만 신기술이 자리 잡을 시간조차 뺏을 만큼 느린 인허가와 규제 폐쇄 논의는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큰 벽"이라며 "삼성의 갤럭시워치 또한 5에 이르러서야 식약처로부터 의료제품 허가가 난 바 있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Samsung
Financial Networks

일상, 당신답게

지키다,

삼성화재답게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시나리오 연구 _ 교통안전문화연구소



당신의 일상은 변화의 연속이니까 우리는 먼저 준비하고, 미리 대비합니다.

교통사고 'Zero' 사회를 만드는 _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재해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_ 기업안전연구소

빅데이터 기반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드는 _ 헬스케어서비스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오늘 세부내용 공개

투자자예탁금 한 달 새 3.8兆 증가... 시장 기대 충족할까

신용거래 용자도 4738억 늘어
종합자산관리계좌 7兆 불어나
기대 부합 시 상승장 연장 전망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자예탁금·신용거래용자 등 증시 자금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달 17일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예고한 뒤 증시도 반등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선 프로그램 내용이 시장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면 증시는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22일 기준 약 53조6264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처음 언급한 지난달 24일(49조7804억원)에 비해 3조846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 계좌에 맡겨두거나, 주식을 팔고 난 이후 찾지 않은 돈으로 증시 진입을 준비하는 대기성 자금으로도 읽힌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이 빚을 내 주식을



23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2664.27)보다 3.43포인트(0.13%) 오른 2667.70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870.11)보다 1.54포인트(0.18%) 하락한 868.57에 거래를 종료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37.7원)보다 2.3원 오른 1331.0원에 마감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사는 자금인 신용거래 용자 잔액도 증가했다. 신용거래 용자 잔액은 18조3766억원으로 이 기간 동안 4738억원 늘었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고도 69조6300억원에서 76조9400억원으로 7조원가량 불어났다.

이처럼 증시 자금이 증가한 것은 26일로 예정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내용 공개를 앞두고 기대감

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다. 기업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은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기재하도록 하고, 공시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있다. 또 주가가 높은 기업들로 꾸려진 신규지수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난달 17일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예고한 뒤 이날까지 코스피 지수는 6.81% 상승했다. 특히 수혜가 예상되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업종으로 분류된 보험(32.68%), 증권(21.71%), 전기가스(21.21%), 금융(21.06%), 운수장비(18.22%) 등이 그사이 가장 많이 올랐다.

전문가들은 주주환원의 방향성이 예고된 데다 이미 여러 기업이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가 부양 정책을 앞다퉀 내놓는 등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있어 이번 발표에서 대책의 세부 내용을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대책을 내놓을 경우 한 달 이상 이어진 상승장이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재현 SK증권 연구원은 "금융권뿐만 아니라 재계 등에서도 관심이 많은 만큼 실망스러운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 실망 매물이 대단

히 많이 쏟아지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책 발표 후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셀온(고점 매도)이 나온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내다봤다.

반면 일각에선 투자자의 기대대로 강도 높은 주주환원책이 담기지 않을 경우 저PBR 종목들의 차익실현 물량이 쏟아져 지수가 조정 국면을 거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PBR과 같은 지표 개선과 이를 독려하기 위한 새 주가지수 개발, 기업 배당세액공제 제도 등 이미 정책에 대한 많은 예상들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 발표되는 정책이 시장과 투자자들의 기대를 상회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28~29일 이틀간 자동차·은행 기업들의 배당기준일이 예정돼 있어, 저PBR주식들에 대한 단기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며 "주식시장의 관심이 AI 등 성장주 테마로 쏠릴 가능성이 큰 만큼 종목 간 차별화를 예상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견조한 실적·주주환원 가능성... "상승동력 아직 남았다"

metro 관심종목

삼성화재

당기순이익 1.8兆... 실적 1위 지켜
K-ICS, 8.6% 상승... 높은 자본비율
증권사, 최고가 제시 등 목표가 출상할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삼성화재의 상승 동력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한 자본·배당의 증가세와 아직은 미흡하나 추후 확대될 수 있는 주주환원 정책 등을 고려했을 때, 밸류에이션 추가 상승 범위가 넓다는 의견이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이달 들어서만 주가가 16.85% 가량 상승했다. 그럼에도 최근 지난해 실적을 발표하자 증권가에서는 주가 상승 여력이 유효하다며 다시 한 번 삼성화재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나섰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1조8216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성적표를 냈다. 동일 기간 영업이익은 2조3572억원, 매출액은 29조8247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3%, 6.2%씩 늘어난 규모이다. 특히 세전이익은 전년 대비 11.7% 성장하면서 창사 이래 최초로 2조4466억원을 실현했다. 실적 1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

킨 모습이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삼성화재는 가정 변경 등으로 인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계약을 포함해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며 높은 안정성을 선보였다"며 "예상을 뛰어넘는 배당 성장과 견조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향후에도 자본과 배당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삼성화재의 지난해 4분기 지급여력비율(K-ICS)은 271.9%로 직전분기 대비 8.6%포인트 상승해 높은 자본비율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K-ICS 비율은 271.3%, 주당배당금은 1만7500원이 될 전망이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향후 금리 하락과 제도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높은 자본비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주가가 크게 상승했으나 아직 추가 상승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유안타증권은 거의 최고가인 40만원을 목표가로 제시하면서 대폭 상향시켰다. 이외에도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삼성화재를 주목하며 목표주가를 출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 거래일인 23일 종가 기준 삼성화재의 주가는 30만8500원이다.

다만 업종 내 최상위 자본 여력에도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가이던스 제시가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의견이 많다. 최근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삼성화재의 주주환원 확대 움직임을 보인다면 성장 동력이 더욱 발달할 수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요 보험사 중 가장 압도적인 자본비율(K-ICS비율 271.9%)을 보유했음에도 다소 소극적인 듯한 모습은 아쉬운 요인"이라며 "높은 자본비율의 해소에 대한 투자자 기대가 높은 데다 추후 자본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한 만큼, 지금보다 주주환원이 개선될 것이라는 점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화재는 컨퍼런스를 통해 주주환원 및 자본정책에 대한 발표 시기를 상반기쯤으로 제시하면서 아쉬움을 샀다.

/신하은 기자 godhe@

증권사, 부동산 PF 사익 추구 '또' 발각

본인·가족명의로 미리 투자
연 60% 고리 이자 수취 사례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임직원들의 부당한 사익 추구가 또 적발됐다. 비공개정보를 이용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미리 부동산 투자에 나서다가 하면 연 60%의 고리로 이자 장사를 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실시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검사에서 다양한 수법의 사익 추구 행위가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다. A사 운용역은 특정 부동산에 투자한 타 운용사의 PF 펀드에 3억원을 투자했다. 수년 뒤에 본인이 자사의 PF

펀드를 설정해 펀드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직접 매수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A사나 PF 펀드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했다. 운용역은 PF 펀드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대비 약 2배를 상환받았다.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내기도 했다. B사 운용역들은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수지와 현금흐름 등 중요한 비공개 사업성 정보를 이용했다. 해당 개발사업의 출자사에 배우자나 본인 명의로 총 2억원을 투자했고, 투자금의 3배가 넘는 금액을 돌려받았다.

C사 임원은 PF 대출금 조달을 자문한 사업장과 관련해 조달정보 등 비공

개 직무 정보를 알게됐다. 가족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초기사업비 10억원을 대여해주고,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를 초과한 연 60%의 고리 이자를 수취했다.

직무 관련 업무를 알선하고 수십억원의 돈을 받아낸 임직원도 적발됐다.

증권사의 한 운용역은 본인이 운용하는 자사 펀드의 보유자산을 타 운용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알고 지내던 컨설팅 회사에 매입자문 업무를 알선했다. 대가로 해당 컨설팅 회사로부터 본인의 가족회사를 통해 약 20억원의 금전을 수취했다.

금감원은 발견된 위규 행위에 대하여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고질적인 사익 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향후에도 감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비만치료제 ETF, 일주일 만에 200억 순매수

삼성자산운용

노보노디스크·일라이릴리 포함

삼성자산운용은 글로벌 비만치료제 기업으로 구성된 KODEX 글로벌 비만치료제 TOP2 Plus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 후 7영업일 만에 개인 순매수 200억원을 넘어섰다고 25일 밝혔다.

KODEX 글로벌 비만치료제 TOP2 Plus ETF는 현재 비만치료제의 선두주자 Top2사인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를 각 25.5%, 26.3%씩 담고 있다. 유럽 시가총액 1위인 노보노디스크는 '위고비'로 유명한 비만치료제 시장의 개척자로서 2023년 시장 점유율이 94%에 달하는 핵심 회사다. 일라이릴리는 현재 전 세계 헬스케어 분야의 시

가총액 1위 제약사로 골드만삭스는 2030년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일라이릴리가 풍부한 자원과 시스템 등을 활용해 약 50%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KODEX 글로벌 비만치료제 TOP2 Plus ETF의 가장 큰 특징은 TOP2 종목 외 8개 종목에 대해서 미국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에서 비만 치료제로 임상 중인 종목만 추려서 동일 가중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먼저 임상 중인 기업만을 편입 대상으로 해 비만치료제 개발 성과의 현실화를 고려했다. 또한 동일 가중 방식으로 단순 시가총액 방식일 경우 소외될 수 있는 비만치료제에 특화된 중소기업의 비중을 비교적 높게 가져갔다. /원관희 기자

“소상공인 대출 7% 이상 고금리→4.5%로 낮아주세요”

5000억 ‘소상공인 대환대출’
중기부, 오늘부터 신청·접수받아
소상공인 최대 1.5만명에 혜택
1곳당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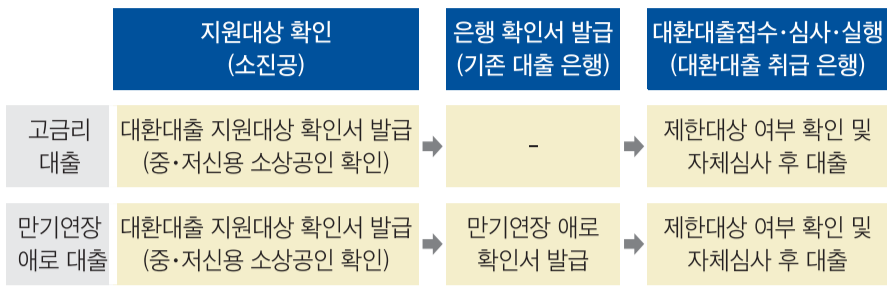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7% 이상 고금리를 4.5%의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정부가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본격 시작하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2019년 686조원에서 지난해 9월 현재 1052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 역시 3.5% (2019년 12월)에서 5.31% (2023년 12월)로 급등했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대환대출 프로세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을 1만~1만5000명 사이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줄일 수 있는 이자 규모도 25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다.

먼저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다.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 보험사 대출도 모두 포함한다.

아울러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운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도 이번에 정

책자금으로 옮겨탈 수 있다.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협조가 가능한 은행은 하나·신한·국민·우리·SC제일·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농협·수협·기업·산업 등 15곳이다.

중기부는 이같은 두 가지 지원 유형 중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외에도 최근 신용상태나 매출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고금리 부담, 영업을 감소로 은행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만기 거절이 되는 사례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라

고 말했다.

이번 대환대출은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연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소상공인 1곳당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엔 올해 대환대출 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한다.

2022년 당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 규모가 3000만원이었다면 이번엔 최대 2000만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또 7% 이상 고금리 대출이 각각 2000만원, 3000만원으로 합계가 5000만원 이내인 경우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환대출 대상은 지난해 예산안을 발표한 8월31일 이전 시행한 대출로 한정하고 있다. 신청 시점에서 대출금도 3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고 있어야 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전국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면 소진공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하고, 소상공인은 해당 확인서를 지참한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은행권의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받기를 원하는 경우엔 대환대출 취급은행 방문 전에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대환대상대출이 7% 이상 금리인지, 3개월 성실상환 중인지 등 지원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대환대출 지원 시 상환가능성을 심사해 최종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중기부는 수요가 몰려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추가 예산 마련 등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외에도 신용보증기금과 일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지원대상과 조건을 비교해 유리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부, 韓 중소기업 중동 진출지원 앞장

중기중앙회와 수출상담회 개최
27일 사우디, 29일 두바이 진행
프레임워크 협력 프로그램 후속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 중소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돕기 위해 손을 잡았다.

중기부는 중기중앙회와 ‘K-Business Day in Middle East 2024’ 수출상담회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27일)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29일)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국내 중소기업들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과 사업지원 강화하기 위해 중기부와 사우디 투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프레임워크 협력 프로그램’의 첫 후속 지원이

다. 특히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민 방문시 양국 정상 의 임석하에 중기부와 UAE 경제부가 체결한 경제협력 MOU의 두 번째 후속 조치 성격으로 마련됐다.

수출상담회에는 한류 열풍으로 수요가 높은 뷰티, 식품, 소비재 분야 유망 중소기업 20개사가 참가하여 인근 중동 지역 바이어 140여개사(리야드 79개사, 두바이 61개사)와 1대1 상담회를 진행한다.

사전 상담을 통해 화장품 소재 기업인 셀바이셀은 쿠웨이트의 유통기업과 장기판매계약을 협상 중이다. 욕실용품 제조기업인 이온폴리도 UAE 유통사와 MOU 체결을 준비하며 중동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선 대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수출상담회의 디지털 전환 정책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협업을 통해 무상으로 지원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실시간 통역 기능을 활용해 관련 정책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네이버의 글로벌 OCR(광학 문자인식) 기술을 통해 상담회 과정에서 생성되는 문서(명함, 상담일지 등)들을 향후 전자문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기부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중동시장의 성공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향후 민관의 지원 역할을 활용해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중동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지난 23일 서울 마포 아만티 호텔에서 열린 ‘이어드림 스쿨 3기 교육생 졸업 네트워킹 데이’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중진공, 이어드림 스쿨 3기 144명 수료

졸업생 8명 중기부장관상 받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공지능(AI) 분야 개발자 인력난 해소를 돕기 위해 추가로 나섰다.

중진공은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아만티 호텔에서 ‘이어드림 스쿨 3기 교육생 졸업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스타트업 AI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이어드림 스쿨’은 AI 분야 개발자 인력난을 겪고있는 벤처스타트업을 위해 청년 개발자를 교육·양성해 취업과 창

업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어드림 스쿨 3기는 지난해 3월에 입교해 12월까지 이론과 실전 프로젝트를 포함한 10개월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졸업생 중에선 13명이 중기부장관상(5명)과 중진공 이사장상(8명)을 받았다.

3기 교육과정을 수료한 144명 중 31명은 과정 진행 중 취업 희망 벤처스타트업에 취직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올렸다. 교육생 7명으로 이뤄진 총 3개 팀은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강력 촉구

중소레미콘업계, 결의대회 개최

중소레미콘업계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제30회 정기총회를 갖고 2023년도 결산보고 및 2024년도 레미콘연합회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확정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함께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1월 31일 국회에 모인 3600명 중소기업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재차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각 지역별 20개 레

미콘조합들이 함께 결의대회를 진행했고, 레미콘연합회 대의원을 비롯한 중소레미콘인 140여 명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배조웅 레미콘연합회장은 “내 가족과 같은 직원이 다치길 바라는 경영자는 아무도 없다. 중소레미콘업계가 모여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실질적 사고예방을 위해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법안 유예를 통해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한편, 레미콘연합회는 전국에 있는 500여개 중소레미콘공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법안 유예를 위한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한솔제지 우유팩 재활용 인쇄용지 ‘Hi-Q 밀키매트’ 선보여

한솔제지가 어린이집에서 수거한 우유팩을 원료로 재활용한 고급 인쇄용지 ‘Hi-Q 밀키매트’를 출시했다.

25일 한솔제지에 따르면 신제품 ‘Hi-Q 밀키매트’는 뛰어난 백감도와 인쇄 광택 등을 통해 최적의 인쇄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상업용 홍보물 및 인쇄물에 적합한 제품이다.

한솔제지는 해당 제품 출시와 함께 오는 4월에 예정된 총선용 브로슈어 및 포스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케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Hi-Q 밀키매트는 어린이집에서 버려진 우유팩을 원료로 재활용한 친환경 제품이다. /김승호 기자

기보, 수익공유형 민간기술거래기관 선정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 사업을 진행할 민간기술거래기관 51개사를 선정했다.

25일 기보에 따르면 온라인 기술이전 플랫폼인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이들 기관을 뽑았다.

이번 사업은 기보와 민간기관이 협력해 기술이전 공동중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민간 중심의 기술거래 시장을 육

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의 수요기술 발굴과 사업화 지원, 스마트테크브릿지 플랫폼 등을 제공하고 민간기관은 중개업무 위탁받아 기보의 인프라를 활용해 기술탐색·매칭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보는 선정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오는 29일 사업설명회를 열어 기보의 기술거래 사업 전반에 대한 소개와 공동중개 사업 세부수행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메콩강 개발’ 국내기업 진출 지원 환경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

라오스서 메콩강위원회장 만나
수자원 종합개발계획 수립 제안

라오스 메콩강 개발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국내기업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라오스 현지에 파견한다.

환경부는 오는 26~27일 임삼준 차관이 단장을 맡는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라오스에 파견해 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메콩강 유역 수자원 종합개발, 매립가스 발전 등 녹색산업 시장에 국내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27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시 메콩강위원회 사무국에서 아눌라키티쿰 메콩강위원회 회장을 만나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의 수자원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제안할 계획이다. 메콩강위원회가 중심 창구로서 유역 국가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메콩강위원회는 메콩강 하류 4개국(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이 메콩협약에 근거해 지난 1995년에 설립한 기구다. 메콩강 유역의 수자원개발, 기후변화대응 등 유역 전반의 개발과 관리, 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임 차관은 2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 위치한 천연자원환경부 청사에서 분감 보라썬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 장관과도 만난다. 국내기업이 라오스 녹색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특히 라오스 비엔티안 매립지에서 한국기업이 추진하는 매립가스 발전 사업과 홍수 대응, 기후적응력 증진을 위한 기후변화협력사업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20조4966억 원의 녹색산업 수주·수출 실적을 달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목표도 설정한 22조 원, 임기 내 100조 원의 수주·수출 효과도 달성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수주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임 차관은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해

외사업을 발굴해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녹색산업 22조 원 수주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민관 윈윈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환경부는 인천 연수구에서 ‘제2차 한-메콩 국제 물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 포럼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메콩강 지역 5개국(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태국·베트남)과 주한미국대사관, 미국국제개발처(USAID) 등 메콩지역 개발협력 기관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 및 신규 프로젝트 발굴 등이 논의됐다. 행사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메콩지역 5개국 정부 대표와 대사 등이 참석했다. 당시 정부는 미국과 메콩강 하류 물 문제 해결 및 재해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지난 24일 의료취약지역인 강원권 공단 직영 동해병원을 방문해 비상근무하는 중환자실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긴급의료지원 체계 긴급정비

근로복지공, 비상진료대책본부 설치
인천·안산 등 산재병원 9곳 대상

의사 파업 사태가 이어지자 근로복지공단이 소속 산재병원의 긴급의료지원 체계를 긴급 정비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보건 의료 위기 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 23일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응급진료가 가능한 9개 직영 산재병원에 긴급 진료체계를 보강했다고 25일 밝혔다.

응급진료가 가능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산재병원은 인천, 안산, 창원, 대구, 순천, 대전, 태백, 동해, 정선 9곳에 소재한다. 공단은 우선 이날 오전 10시 전

국 병원장을 화상으로 연결,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해 현장 대비태세를 확인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 사항을 공유했다. 공단 비상대책본부는 앞으로 1일 단위로 현장 상황을 확인해 대응전략을 시달할 계획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각 병원장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응급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응하고, 연장근무·On-call 대기 등 비상근무체계도 보강할 것을 지시했다.

박 이사장은 앞서 지난주 순천병원을 방문한데 이어 지난 24일 의료취약 지역인 강원권 동해병원을 방문해 주말 비상진료대기 상황을 점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설 명절 체불임금 1167억 청산 ‘역대최대’

고용부, 4주간 체불·청산 지도
작년 570억 대비 두배 이상 증가

올해 설 명절 체불청산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월15일~2월8일까지 4주간 설 명절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 체불임금 1167억원(근로자 1만7908명)을 청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명절 체불임금 570억 원을 청산한 것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실적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고용부는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최근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건설업 체불 청산에 집중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근로감독관은 민간건설현장 600여 개소에 대해 현장지도도를 실시하고, 133억원의 체불임금을 현장에서 즉시 청산했다.

특히, 태연건설이 시공 중인 105개 현장을 긴급 점검, 체불임금 중 63억원(전체 체불액의 96%)을 청산했다.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3번째 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540만 원을 체불하고 수사망을 피해 도피행각을 벌인 건설업자를 끝까지 추적해 구속수사하기도 했다. 또, 편의점 아르바이트 임금 35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소액을 이유로 9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 체불임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반드시 법정에 세움으

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임금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부터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실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도 765억원(1만3658명) 집행됐다. 고용부는 올해 1월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용자 상환기간을 연장(거치 1→2년)해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1등급 냉난방기 설치 소상공인 비용 지원

산업부, 구매비용의 최대 40%

대 480만원이다.

사업장에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 등을 신규 설치하는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구매비용의 최대 40%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한 ‘2024년도 고효율기기·설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3월 25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7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에너지효율 1등급 4개 품목을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구입비용의 40%를 지원한다.

품목별 지급 한도는 냉난방기·냉장고 각 160만원, 세탁기·건조기 각 80만원으로, 4개 품목 구매시 지원금은 최

다만,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제조사 문의가 필요하다.

지원금은 올해 1월1일 이후 구매한 경우도 수급 적용되며, 사업은 연말까지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사업 공고문은 26일 한전ON과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 게시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 증빙서류(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기기명판·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기기설치 전경 사진, 구매증빙 등)를 구비해 한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고 관련 내용은 한전 본사(061-345-1550~1554)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카타르에 ‘K-스마트팜’ 수출 나선다

농식품부, 스마트팜협력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가 카타르 도하에서 지난주 ‘제1차 한-카타르 스마트팜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카타르 정부는 국가식량안보 전략(2018~2023년)을 수립하고,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카타르는 올해 안으로 다음 단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며,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한국을 방문해 혁신밸리 모델과 스마트팜 수출 기업을 둘러볼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력위에서는 카타르 측 농업분야 투자 전문가인 하사드 푸드를 초청해 국내 방문 시 기업 간 비즈니스 포럼 개최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며 “경제실무단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카타르 스마트팜협력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카타르 타미姆 국왕 임석하에 개정·체결된 스마트팜 협력 업무협약(MOU)에 근거해 운영되는 국장급 실무위원회이다. 양국 간 스마트농업 분야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됐다.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앞으로 K-스마트농업 기술이 중동 등 수출 유망국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기업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장애인고용소·청년재단·민센터, 맞손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과 청년재단, 서울시 경제성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민센터)가 3차 협약을 체결, 경제성 지능 청년의 일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이들 3개 기관은 지난 23일 서울시립대학교 휘카페에서 경제성 지능 청년과 가족,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업무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향후 경제성 지능 청년 중 진로탐색을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지원하고, 일역량 강화 훈련과 일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개발원은 적절한 고용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제성 지능 청년을 위해 ‘구직육구진단검사’, ‘장애인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 등을 활용해 진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직업훈련과 일경험을 통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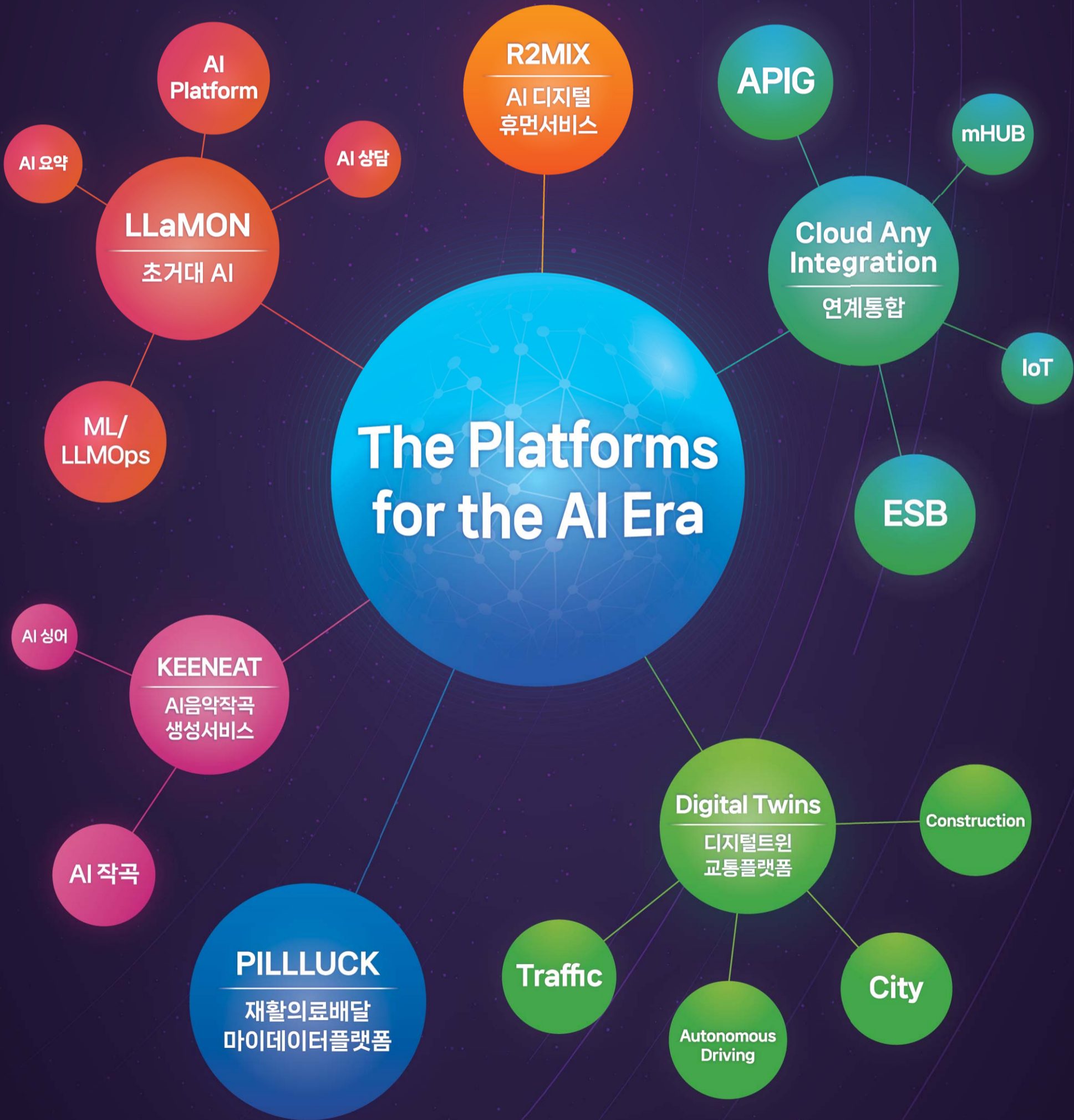


AI · 데이터 플랫폼 혁신 기업

Platforms for the AI Era

연계·통합 미들웨어 시장점유율 1등 기업에서

AI·데이터·디지털휴먼, 디지털트윈 교통·자동차·시티·건설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



경북도, 'K-U시티' 본격화... 17개 시군에 291억 투입

지역산업 기반 인재 양성 등 추진
남은 5개 시군에도 컨설팅 예정
“청년 지방정주시대 실현 목표”

경북도는 청년 지방 정주시대 실현을 위해 지난해까지 인력양성 협약을 체결한 17개 시군, 29개 대학, 30개 고교, 95개 기업과 함께 올해 'K-U 시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올해를 'K-U시티 실행의 해'로 정하고 이들 17개 시군의 U시티를 구체화해 나가며 남은 5개 시군도 U 시티 컨설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17개 시군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총사업비 291억 원이 투입된다.

주요사업으로 지역산업 기반 인재 양성(83억 원), 연구지원센터 건립(60억 원), 정주환경 조성(140억 원), 문화콘텐츠 활성화 사업(7억 5000만 원) 등이 추진된다.



경북도청.

먼저 '지역산업기반 인력양성 및 혁신기술 개발'을 위해 83억 원이 투입돼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육성 교육과 연구 프로그램 운영 ▲지역 전략학과 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 ▲대학-기업 협력 연구 및 사업화 등 혁신 기술개발 연구 지원 등의 사업이 시행된다.

'연구지원센터 조성'은 1시군-1대학-1특성화(기업)를 통한 지역 전략 산업 양장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된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400억 원(곳당 80억) 규모로 문경시, 청송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이 이 사업을 벌인다.

'정주환경 조성'은 K-U시티 참여 기업 종사자와 학생들을 위해 세어하우스 및 청년 레지던스, 임대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도는 7개 시군에 2025년까지 28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화콘텐츠 활성화'는 K-유머·K-팝·K-스토리 등 K-U시티 문화콘텐츠 자원을 활용해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주변 시군의 기업 근로자와 대학생까지 공유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지방시대 선도모델 확신을 위해 항공 MRO와 항공 물류 등 항공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규로 'K-U시티 플러스'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의성 공항신도시와 연계해 항공 MRO와 항공 물류 관련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공동캠퍼스와 명품 주거단지, 교육 및 문화공간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저출생 극복 및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K-U시티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서 청년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고 결혼해 누리고 살 수 있는 청년 지방정주시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고흥군

'우주항공 해설사' 양성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차별화된 우주항공 전문 해설을 제공하는 '우주항공 해설사'를 양성한다.

우주항공 해설사는 우주항공 관련 시설이 집적된 고흥군에서 기획한 시책으로, 고흥 우주항공축제(2024.5.4.~6.)와 우주항공 여행상품 운영 시 어려운 우주 관련 이야기를 관광객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관광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모집 대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거나 활동 공간(직장 등)이 고흥인 60세 미만으로, 지역관광에 소양이 있으며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고 건강에 제약이 없으면 지원할 수 있다.

/고흥(전남)=양수영 기자

안동시

'운전면허센터' 들어선다

안동시를 비롯한 경북 북부권 주민들의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안동시는 도로교통공단과 안동운전면허센터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경북 북부권 주민이 운전면허 학과 시험에 응시하려면 왕복 2~4시간이 소요되는 문경 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양 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안동 운전면허센터는 안동과학대학교 내에 들어설 예정이다.

/안동(경북)=장영우 기자

대구시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 발굴

대구광역시시는 전 국민 및 대구시 산하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2024년 제1회 정책제안 공모'를 추진한다.

공모 주제는 ▲달빛철도와 연계한 대구시 발전 아이디어 ▲동성로 부흥을 위한 활성화 방안 ▲미래형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대구시 공무원 대상) 건전제정을 위한 대구시 예산 절감 아이디어 등 4건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접수 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30일간이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

경남도

'스마트 물류 특성화 대학' 모집

경상남도는 스마트 항만 및 신공항 개장을 대비한 스마트 물류 인재 양성을 위해 2월 26일부터 3월 20일까지 도내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스마트 물류 특성화 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정보통신 기술 역량을 물류 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개발해 제시하는 우수대학 1개소를 선정해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1년간 사업 시행 후 성과 평가를 진행, 추가 지원과 도내 특성화 대학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광주시, 특색 갖춘 골목상권 육성 전략·공동마케팅 등 1.1억 지원

우수상권 집중육성 사업 대상 모집
중장기 활성화 전략·특화상품 개발

광주시가 골목상권을 육성하기 위해 활성화 전략 수립·공동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표 상권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우수상권 집중육성 사업' 대상을 공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시는 특화기반을 갖춘 총 2개 상권을 선정해 최대 1억1000만 원을 투입한다.

또 골목상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권별 중장기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이야기와 특화상품 개발,

디지털전환사업 상담, 공동마케팅, 지역형 축제(이벤트) 등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상권의 정체성을 구축해 광주만의 특색을 갖춘 대표 상권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골목상권 등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돼 있어야 하며 대표자가 선출된 상인 단체이다.

신청 접수는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이며 자치구를 통해 광주경제진흥원 상생일자리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수상권 선정절차는 사업계획의 구체성, 입지의 적정성, 협업성 등을 바탕으로 서류평가와 발표·현장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한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장성군, 지난해 출생아 수 35.2% 증가

진원·남면 개발사업에 기대감 ↑

장성군의 지난해 출생아 수가 직전 해보다 3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2023년도 장성군 출생아 수는 2022년보다 45명 늘어난 173명이다. 군 단위 지자체임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변화다.

향후 인구 전망은 더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장성군과 광주광역시 점점 지역인 진원·남면 일원에서 진행 중인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 사업 때문이다.

군에 따르면 3814세대 대단위 주거 단지가 조성돼 9500명 가량 인구가 유입이 예상된다. '읍 하나'가 더 생긴다고 할 정도의 규모다.

일자리도 늘어난다. 2029년 국립심뇌혈관연구소가 완공되면 1만2500명 규모의 고용유발 효과가 창출될 것



김한중 장성군수가 이도윤 군을 안고 있다. 이도윤 군은 올해 장성군에서 태어난 첫 번째 셋째이다.

/장성군

로 보인다.

4900억 원 규모 '장성 데이터센터'도 올해 착공해 2026년 완공된다.

중장기 사업과 함께 장성군이 추진 중인 청년 지원사업도 이목을 끈다.

/장성(전남)=양수영 기자

진주시, 중동서 600만弗 수출상담 성과

'두바이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진주시는 지난 19~23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2024 두바이 국제식품박람회(Gulfood 2024, 이하 걸푸드)'에 참가해 진주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바이어 만남을 통해 600만 달러 수출 상담과 60만 달러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참가한 걸푸드에서 진주 배와 딸기의 가능성을 확인한 진주시는 이번에는 배와 딸기 외에도 키위, 애호박, 고추 등 다양한 농산물을 전시·홍보했다.

또 중동 지역에서 K-푸드의 건강 기능성 식품 인기에 맞춰 배즈스, 도라지 캔디, 동결 건조차 등 농산물 가공품도 선보였다. 그리고 진주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진주드림' (진주시



진주시는 지난 19일~23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2024 두바이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해 진주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진주시

농산물 공동 브랜드) 농산물 꾸러미도 함께 전시해 브랜드도 함께 알리는 성과도 거뒀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바이어 관리를 통해 실질적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주(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경주시, 파격 인센티브로 관광객 유치 총력

2.5억 투입... 관광 빅세일 등 선행

경주시가 올해 다양한 관광 상품과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관광객 발길을 사로잡는다.

시는 2억 5000만 원 예산을 들여 관광 빅세일과 단체관광 인센티브 2가지 이벤트를 선보인다. 관광 빅세일은 유료 입장권 인증 이벤트로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유료 입장권 인증 이벤트는 경주시와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화랑마을, 토함산자연휴양림 등 3곳의 숙박시설과 동궁원, 양동마을, 동궁과월지, 금관총 등의 관광지 11곳, 총 14곳이 대상이다.

숙박시설 1곳과 관광지 2곳 이상 방

문할 경우 온누리 상품권 2만 원을, 관광지 4곳 이상 방문 시 온누리 상품권 1만 원을 각각 동궁과월지 대표소에서 입장권 확인 후 상품권을 제공한다.

또 14곳 중 1곳 이상 방문한 입장객이 SNS에 해시태그를 포함한 방문 후기 업로드를 할 경우 동궁과월지, 김유신장군묘, 무열왕릉, 오름, 포석정, 천마총,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대표소에서 기념품도 지급한다.

수확여행단 및 단체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단체관광 인센티브도 운영한다.

국내외 10인 이상 경주 방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면 1인당 1만원~1만 5000원, 20명 이상이면 1만5000원~2만원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영업익 줄고 행동펀드 갈등... '에세 체인지' 방경만, 숙제 산적

(KT&G 사장 후보)

KT&G 사추위, 주총에 선임안 제출 중남미·아프리카 신시장 개척 과제 FCP서 '경영권 승계' 인사 반대 경영진 우호지분 확대 등도 비판



방경만 사장 후보. /KT&G

KT&G의 차기 사장 후보로 방경만 KT&G 수석 부사장이 선정된 가운데,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잡음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다.

KT&G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는 백복인 사장의 후임으로 방 수석 부사장을 점찍고, 3월 말 정기 주총에서 차기 사장 선임안을 올릴 방침이다.

KT&G 사추위 측은 방 수석 부사장이 회사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만큼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방 수석 부사장은 1971년생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햄프셔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밟았다. 1998년 KT&G의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에 입사한 후 브랜드실장, 글로벌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사업부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하지만, 행동주의펀드인 FCP 측은 KT&G가 또다시 내부 인사를 밀고 있으며, 이는 재단을 이용한 경영권 승계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KT&G는 2002년 민영화 이후 4명의 사장 모두 내부 인사에서 선출했다. 현재 임기 만료를 앞둔 백복인 사장의 경우 2015년 10월 취임해 2018년, 2021년 연달아 연임에 성공하면서 9년간 사장직을 지냈다.

KT&G 재단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민영진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퇴임 이후 현재까지 복지재단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연임을 포기한 백 사장도 장학재단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 재단들은 모두 KT&G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FCP는 KT&G가 자사주 1000만여 주를 매각하지 않고 재단과 기금에 무상으로 증여해 경영진에 대한 우호 지분을 늘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KT&G 측은 "재단과 기금 출연에 대해 두 차례 감사위원회와 한 차례 이사회를 통해 내용을 검토한 결과,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출연 규모와 조건이 과다하지 않았으며 법령상 요구되는 제반 절차가 모두 준수됐다"고 설명했다. 또 "처분 자사주의 절반에 달하는 주식은 직원이 직접 출연하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유상출연 등이었다"며 FCP 측의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총에서 사장 선임이 확정되면 방 부사장은 2027년까지 4조원을 투입해 관련 수출, NGP(전자담배), 건기식 등 3대 핵심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연간 10조 원 매출액 달성을 위한

회사 비전 달성을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방 수석 부사장이 브랜드실장 재임 시 출시한 '에세 체인지'는 현재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로 국내 관련담배시장 점유율 반동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 글로벌본부장 재임 때에는 해외시장별 맞춤형 브랜드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진출 국가 수를 40여개국에서 100여개국으로 확대하는 등 해외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해 사상 최초로 글로벌 매출 1조원을 돌파하는 성과 창출을 주도하기도 했다.

KT&G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5조8724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한 1조1679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흡연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해외 관련 매출 제고를 위해 기존 주력 시장인 중동과 독립국가연합 지역을 기반으로 시장 잠재력이 큰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신시장 개척이 필수적이다. 경영 성과 외에 FCP와의 갈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파리바게뜨

베리 굿 딸기 페어 누적판매 120만개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10일 선보인 '2024 베리 굿 딸기 페어'의 베이커리 제품이 누적 판매량 120만 개를 돌파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매년 가장 달콤하고 신선한 제철 딸기를 활용한 베이커리를 선보이는 '2024 베리 굿 딸기 페어'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높은 당도와 신선도를 자랑하는 제철 딸기를 활용한 베이커리를 출시, 새콤달콤한 맛과 화사한 핑크빛 비주얼로 온오프라인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6주만에 누적 판매량 120만 개 이상의 높은 판매고를 기록했다.

올해 딸기 가격이 급등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딸기 페어를 통해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딸기를 즐길 수 있었던 것이 인기 요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딸기를 베이커리와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맛과 비주얼로 선보인 점도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주요 제품은 ▲겉은바삭 속은 촉촉한 핑크마블 데니슈 빵 사이사이에 상큼한 딸기요거트 크림을 샌드한 '핑크스트로베리 데니슈' ▲쫄득한 찰떡으로 감싼 딸기와마스코포네 치즈가 어우러진 '생딸기 찰떡앙빵' 등이다.

/신원선 기자

이마트 "정호영 셰프 요리, 실속 가격에 맛보세요"

품질·가격 경쟁력 높은 피코크 선배 나가사키 짬뽕탕·마제우동 2종 출시



피코크 '카텐 마제우동'(왼쪽)과 '카텐 나가사키 짬뽕탕'. /이마트

이마트가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높인 피코크 상품을 잇따라 선보인다. 일품 요리도 실속 있는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신제품을 출시함과 동시에 기존 상품은 고객 관점에서 리뉴얼해 재출시하는 방식이다.

먼저 맛집과 협업한 신제품을 선보인다. 피코크는 2013년부터 '순희네 빈대떡', '초마', '진진' 등 노포부터 미쉐린 레스토랑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맛집 협업으로 다수의 히트상품을 선보여왔다. 이번엔 일식 전문 정호영 셰프가 운영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많은 연화동의 '카텐'과 손잡고 인기 메뉴 2종을 밀키트로 선보이게 됐다.

지난 17일 출시한 제품 2종은 카텐의 비법을 그대로 담은 '나가사키 짬뽕탕'

과 '마제우동'이다.

'피코크 카텐 나가사키 짬뽕탕'은 진한 사골 육수에 새우, 백합조개 등 시원한 해물이 더해져 술안주로 제격인 국물 요리다. '피코크 카텐 마제우동'은 쫄깃한 우동면과 돼지고기, 수란, 부추, 가쓰오부시 등 다양한 재료들을 함께 섞어먹는 제품으로, 다채로운 식감을 즐길 수 있다.

각종 해물과 채소를 면과 함께 매콤

하게 볶아낸 쟁반짜장도 밀키트로 출시했다. 피코크 쟁반짜장은 2인분에 9980원으로, 1인당 5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푸짐한 중식 요리를 맛볼 수 있어 경제적이다.

기존 피코크 상품들은 고객 의견을 적극 반영해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지난 1월 리뉴얼 출시한 '피코크 샤브샤브 요리재료 밀키트'가 대표적이다. 구성품 중 쓴맛으로 인해 호불호가 강했

던 적근대와 비타민을 제외하고, 고객들이 함께 곁들여 먹었다는 후기가 많았던 숙주와 표고버섯, 느타리 버섯을 풍성하게 추가했다. 담당 바이어가 리뉴얼 과정에서 'e-Trend' 시스템의 도움을 특별히 받은 결과다.

피코크는 상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고객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월 이마트 앱 내 피코크 브랜드관인 '피코크 브랜드스퀘어'를 개설한 것. 브랜드스퀘어란 고객이 브랜드를 팔로우 하여 쇼핑에 유익한 혜택과 정보를 얻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고객들은 피코크 상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이용자 간 레시피를 공유한다. 피코크 개발자와 바이어는 다양한 고객 의견을 수렴해 더 나은 상품을 기획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고객이 GS25에서 자체 간편결제 시스템 GS Pay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GS리테일

GS25 'GS페이' 간편결제 사용률 1위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자체 페이인 GS 페이가 지난달 간편 결제 수단 중 사용률 1위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GS 페이는 지난 21년 8월 론칭한 GS리테일이 선보인 간편 결제 시스템이다. 고객이 GS 페이에 신용카드나 결제 계좌를 1회만 연동하면 클릭 한 번에 GS25, GS더프레스, GS샵 등 GS리테일의 모든 브랜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GS 페이로 상품을 결제할 경우 GS&포인트 2% 적립(계좌결제 시), 행사상품 추가 할인 등의 혜택도 다양하다.

GS25는 결제의 편의성, 안전성, 매월 펼쳐지는 파격적인 행사들을 비롯해 편의점, 슈퍼마켓, 홈쇼핑을 잇는 통합적 록인 효과가 GS 페이의 사용빈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GS Pay의 1월 결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4% 신장하는 등 2배 넘게 증가했다.

/신원선 기자

SSG닷컴, 스프링 패션 위크 등 할인전

온앤온 시즌북북 공개 등 진행

SSG닷컴은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일주일간 패션 카테고리 행사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스테디셀러 시즌 의류 행사와 디자이너 브랜드 큐레이션을 함께 운영하며 봄 패션 수요를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스프링 패션 위크'를 열고 입점 브랜드 시즌 신상품과 스테디셀러를 한데 모아 선보인다. '온앤온' 시즌 북북을 공개하고 최대 20% 할인하며 '세인트제임스', '조이그라이스' 등의 인기 브랜드도 혜택가에 만나볼 수 있다.

팬톤 선정 '올해의 컬러'인 '피치 퍼

즈' 색상의 포인트 아이템도 제안한다. 복숭아 빛의 이 색상은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디자이너 브랜드 중심의 큐레이션 매장 '룩업'은 레더와 스웨이드 제품을 테마로 운영한다. 클래식 기반의 프렌치 라이프스타일 컨템포러리 브랜드 '르세지엠'의 가죽 자켓과 팬츠, 석징해 디자이너가 전개하는 '브크'의 가방류를 대표 상품으로 준비했다.

행사 기간 매일 패션, 명품 등에 적용 가능한 12% 할인 쿠폰을 선착순 제공한다. SSG페이 행사카드 결제 시 청구할인도 최대 7%까지 받을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신세계면세점-이스턴에디션, 업무협약

아트 브랜딩 강화 일환 맞춘

신세계면세점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이스턴에디션'과 아트 브랜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23일 서울 종로 태오양스튜디오에서 양호진 신세계면세점 전무와 손건일 상무를 비롯해 이스턴에디션의 임대선 대표, 양태오 대표, 홍혁진 대표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브랜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 협업을 펼쳐 브랜드 간 시너지 창출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스턴에디션은 한국 본연의 미학과 전통 공예로부터 영감을 동시대적 감각으로 풀어내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다. 아키텍처다이제스트(AD)에서 한국인 최초로 세계 최고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100인으로 선정된 양태오 디자이너가 총괄 아트디렉터를 맡고 있으며 공간 및 제품 디자인을 직접 기획해 세간의 큰 주목을 받으며 급부상하고 있다.

먼저 양사는 신세계면세점 캐릭터인 '폴앤바니'를 앞세운 시그니처 '향' 개발에 나선다. 캐릭터 지식재산권(IP)을 적극 활용해 신세계면세점만의 독자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제약업계, 아일리아 시밀러 개발 속도... '아필리부' 첫 성과

〈안과질환 치료제〉

삼바에피스 아일리아 시밀러 확보
황반변성 치료제 2종 동시 보유

셀트리온 'CT-P42' 개발 박차

올해 1월 블록버스터 약물 '아일리아'의 국내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안과질환 치료제 시장 공략을 가시화하고 있다.

25일 바이오·제약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아필리부(성분명: 에플리버셉트)'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국내 최초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제 품으로 '아필리부'가 이름을 올리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시장 선점에 나서게 됐다.

'아필리부'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아일리아는 미국 리제네론이 개발한 안과질환 치료제로 황반변성, 당뇨병성 황반부종 등의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황반변성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 국가의 황반변성 관련 시장 규모는 지난 2021년 74억 달러(약 9조 8605억원)에서 오는 2031년 275억 달



'아필리부' /삼성바이오에피스

러(약 36조643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아일리아는 2022년 기준 전 세계에서 약 97억5699만 달러(약 12조684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번 품목허가를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국내 처음으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아일리아', '루센티스' 등 블록버스터 황반변성 치료제 2종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동시에 보유한 유일한 기업이 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022년 식약처로부터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아멜리부(성분명: 라니비주맙)'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아멜리부'는 황반변성, 당뇨병성 황반부종 등에 따른 시력 손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아울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아필리부'와 '아멜리부'의 국내 판매를 위해 삼일제약과 판매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양사는 지난 2023년 1월 아멜리부를 출시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아필리부 관련 계약까지 체결했다.

셀트리온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로 'CT-P42(성분명: 에플리버셉트)'를 개발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 2023년 7월 식약처에 'CT-P42'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셀트리온은 CT-P42의 해외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 2023년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도 'CT-P42'의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한 바 있다. 아일리아의 미국 독점권이 오는 2024년 5월, 유럽 물질특허가 2025년 11월 만료될 예정인 것에 따른 행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CT-P42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품목허가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며 "CT-P42는 셀트리온이 안과질환 치료제 시장까지 개척하기 위한 제품으로 기존에 보유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항암제와 함께 셀트리온의 영향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CT-P42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품목허가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며 "CT-P42는 셀트리온이 안과질환 치료제 시장까지 개척하기 위한 제품으로 기존에 보유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항암제와 함께 셀트리온의 영향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한림대성심병원, 의료현장 첨단화 앞장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 우수 평가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 의료 현장에서 로봇 도입 및 활용 전략을 적극 펼치고 있다.

한림대학교의료원은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 지난 21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한 'AI·5G 기반 서비스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 최종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평가를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한림대성심병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국내 최다종, 최대 규모로 의료 서비스로봇 7종 73대를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 맞춤형 로봇 서비스와 긴급 상황 대처 보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는 것이 병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한림대성심병원은 '병원 특화 로봇 사용 시나리오' 10가지를 구현해 실증을 시작한 지 1년 5개월 만에 2만 4849건의 로봇 서비스 활용 건수를 기록했다.

이밖에 ▲국내 최다종 로봇 연동 통합 관제 플랫폼 구축 ▲의료 서비스로봇 전문가 워킹 그룹 운영 및 성과 공유 확산 ▲완성도 높은 로봇 사용 시나리오 개발 ▲공간 인프라 연동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활용 성과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한림대성심병원은 국내 로봇 기술이 향후 K 의료 해외 진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셀바이오텍, 유산균 11종 'GRAS' 인증

GRAS에 세계 최다 유산균 등록

셀바이오텍이 한국산 유산균의 경쟁력을 입증해 유산균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셀바이오텍은 한국산 유산균 11종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품(FDA) 최상위 안전성 인정 제도 'GRAS' 인증을 취득했다. 이로써 셀바이오텍은 미국 식품의약품 'GRAS'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산균을 등록하게 됐다.

미국 식품의약품 GRAS 등재 유산균은 현재 총 68종이다. 세계 대표 유산균 기업인 덴마크 크리스찬 한센이 9종, 미국 듀폰 다니스코가 7종, 일본 모리나는 6종을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바이오텍은 16명의 박사진을 포함해 47명의 미생물 전문가와 함께 K유

산균의 안전성을 세계 시장에서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9년 동안 셀바이오텍은 ▲균주 유전체 분석 ▲항생제 내성 검사 ▲독성 인자 검사 ▲동물 유독성 검사 ▲인체적용시험 등을 선제적으로 진행해 왔다. 특히 안전성 증명은 살아있는 생균을 섭취하는 유산균 제품의 필수 요건이다.

셀바이오텍 관계자는 "상당 부분의 연구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DA의 강도 높은 검증 과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할 정도로 진입 장벽이 높았다"며 "인증받은 유산균은 '듀오락' 전 제품에 주원료로 활용되고 있는 특허 균주"라고 말했다.

셀바이오텍은 이번 인증을 기록제로 삼아 세계 유산균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SK바사, '장티푸스 접합백신' 해외진출 초읽기

WHO 사전 적격성 평가 인증
주요 발병국 중심 시장확대 계획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장티푸스 접합백신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장티푸스 접합백신 '스카이타이포이드 멀티주'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사전 적격성 평가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인증은 백신의 제조 공정, 품질, 임상시험 결과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심사 통과 시 국제 조달 입찰 자격이 주어진다. 세부 절차로는 ▲임상시험과 품질 데이터를 포함한 기술 문서 심사 ▲샘플 품질 테스트 ▲공장 GMP 설비와 품질관리 수준 실사 등을 통과



'스카이타이포이드 멀티주' /SK바이오사이언스

해야 한다.

이번 인증은 유니세프, 범미보건기구 등 유엔 산하기관이 주관하는 국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요건인 만큼 해외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것이 SK바이오사이언스 측의 설명이다.

스카이타이포이드 멀티주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국제백신연구소가 공동

으로 개발한 장티푸스 접합백신이다.

운반체 역할을 하는 디프테리아 독소 단백질에 항원 역할을 하는 장티푸스균의 다당류를 접합하는 '정제 Vi다당류-디프테리아독소이드 접합체' 방식을 활용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스카이타이포이드는 기존 경구용 생백신이나 다당류 백신에 비해 생후 6개월~만 2세의 영유아에서도 접종 가능하다"며 "1회 접종으로도 충분한 면역원성과 장기적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공공조달 시장 등을 통해 주요 장티푸스 발병국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버드뷰, '화해 2.0' 선포

뷰티 플랫폼 '화해'가 소비자에게는 고도화된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고 뷰티 브랜드와는 동반 성장에 나선다.

25일 뷰티 업계에 따르면 뷰티 플랫폼 화해를 운영하는 버드뷰가 '화해 2.0'을 새롭게 선보인다. 지난 2013년 서비스 출시 후 11년 만에 단행하는 리브랜딩이다.

'화해 2.0'은 기존 정보 과부하로 나에게 맞는 뷰티 제품을 쉽게 찾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탐색 및 추천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구축한다.

/이청하 기자

삼바에피스, '피즈치바' 상업화 속도

유럽서 판매허가 긍정 의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유럽 의약품 시장에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피즈치바' 상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유럽 의약품청 산하 약물사용 자문위원회로부터 '피즈치바(성분명: 우스테키누맙)'의 판매 허가 긍정 의견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따르면 통상 2~3개월 가량 소요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최종 검토를 거쳐 '피즈치바' 공식 판매 허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피즈치바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하고 있는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다. 피즈치바의 오리지널 의약품 스텔라라는 얀센이 개발한 만성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다. 면역반응에 관련된 신경 전달물질 인터루킨의 활성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췄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피즈치바 판매에 대한 허가 긍정 획득 의견을 받음으로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게 됐다.

/이청하 기자



애니콘주. /유한양행

애니콘주 등 K-반려동물 산업 홍보

유한양행이 동물의약품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제23차 아시아·태평양 수의사회 총회' 공식 후원사로 선정돼 대한수의사회와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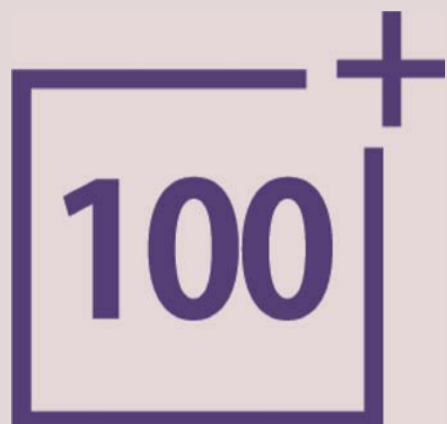
이번 계약을 통해 유한양행은 행사 기간 동안 국내외 임상 수의사들에게 동물용 의료가기 '애니콘주' 등 K 반려동물 산업 발전에 대한 활발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애니콘주'는 골관절염이 있는 반려동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성분 주사제다.

아울러 유한양행은 공중 보건과 동물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수의사들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제23차 아시아·태평양 수의사회 총회'는 30개국 3500여 명의 수의학 전문가와 관련 단체들이 참가하는 학술대회로 오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유한양행은 지난 1962년 국내 처음으로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반려견 인지기능장애 증후군 치료제 '제다큐어', 골관절염 치료제 '애니콘주' 및 동물병원 전용 처방 사료 '와이즈벳'을 잇따라 선보인 바 있다.

/이청하 기자



2024 100세플러스 포럼 시즌1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

2024.03.20(수)

14:00~17:10

서울 명동은행회관2층국제회의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옥스퍼드대학교 그린템플턴 칼리지 수료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경제유튜브채널 <삼프로TV>
저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77>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소장, 수석부사장
저서 <박원갑 박사의 부동산
트렌드 수업>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자외연금센터 본부장
KBS1라디오 <은퇴설계, 오늘부터> 출연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센터장

■ 행사개요

- 행사명: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 주 제: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
- 일 시: 2024년 3월 20일(수) 오후 14:00 ~ 17:10
- 장 소: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등 록: <https://www.metroseoul.co.kr>(메트로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
- 문 의: 100세플러스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후 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13:30~14:00 VIP Tea 타임)
축사	14:00~14:10	김주현 금융위원장
개회사	14:00~14:20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 ~ 15:10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전망
강연1	15:10~15:50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강연2	15:50~16:30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부동산전망과 투자전략
강연3	16:30~17:10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자외연금센터 본부장 : 고령화시대, 재테크 전략
폐회	17:10	



새마을금고중앙회, 성성식 이사 등 임원 선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충남 천안 MG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제77차 대의원회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와 금고 이사장인 이사 선출을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성성식 이사(왼쪽부터), 박무완 이사, 이상화 이사, 김민 새마을금고중앙회장, 황길현 전무이사, 최훈 지도이사, 임진우 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DB생명, 데이터 기반 보험 디지털 혁신 앞장

DB생명은 지난 21일 DB Inc., LG CNS와 전략적 미디어 데이터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3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보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호식 DB생명 디지털혁신본부 본부장(왼쪽 두번째)과 이관복 LG CNS 미디어데이터사업단 단장(왼쪽 첫번째), 김상동 DB Inc. 신기술추진실 상무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DB생명



동서식품, 다문화 가정 아동에 행복상자 전달

동서식품은 23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동서식품 본사에서 다문화 가정 아동(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해 학용품, 도서 등을 담은 행복상자를 만드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동서식품 임직원들은 각 아동들이 갖고 싶어 하는 도서를 사전에 파악해 손수 만든 이름표와 함께 상자에 담아 의미를 더했다. /동서식품



한신대, '경기도 평생배움대학 GCC 사업' 선정

한신대학교는 최근 '2024 경기도 평생배움대학 GCC 새롭고 캠퍼스' 사업(이하 경기도 평생배움대학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한신대는 '한신대와 함께하는 경기도 평생교육 이G, 옛GI'라는 프로그램으로 3월부터 시작해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총 100시간에 걸쳐 수강생 7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 교수·강사 등 교육인력 36명이 투입된다. /한신대

인사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 △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외교부 중국 주재관 오원만

부음

▲김명승씨 별세, 김일환(전 광주일보 편집국장·전무이사)씨 부친상 = 24일 오후, VIP장례식장 1층 101호, 발인 27일 오후 12시 30분, 062-521-4444

삼성전기, 광학인재 초청... '초일류 테크 부품사' 비전 공유

렌즈분야 T&C 포럼

기술 트렌드 제시... 혁신기술 토론 이태곤 부사장 등 임원들 현장소통

삼성전기가 광학 인재들을 초청해 미래를 함께 하자고 요청했다. 삼성전기는 23일 수원사업장에서 렌즈분야 T&C 포럼(Tech & Career Forum)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행사는 렌즈 및 광학 분야 연구를 하고 있는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 40여명을 대상으로 직접 소통하고 미래 비전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광학통신솔루션사업부장인 이태곤 부사와 렌즈팀장 김동진 상무, 조용주 마스터 등 핵심 임원들이 동석했다.

삼성전기는 글로벌 우수 인재 발굴을 확대하고 삼성전기 채용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광학 관련 시장에서 우수 인재 확보와 양성이 중요한



삼성전기 렌즈분야 T&C 포럼 (Tech & Career Forum)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미래 경쟁력이라며, '초일류 테크 부품회사' 도약을 위해 인재 확보와 육성에 지속 투자 중이라는 설명이다. 삼성전기는 6시간에 걸쳐 라인투어 등으로 회사를 소개하고 기술 트렌드를 제시, 렌즈 기술분야별 토론 등 프로그램까지 구성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광학 설계 ▲광기구설계 ▲광학코팅 등 혁신기술에 대해 삼성전기 임직원들과 토론할 수 있었던 테크세션을 가장 인상적인 코너로 꼽으며 "기업의 시각에서 바라본 렌즈/광학 관련

기술트렌드와 시장 소비자들의 요구 등을 알게되어 좋은 경험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포항공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형우씨는 "내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기업에서 적용되는 있는 것을 체험해 볼 수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다"며 "돌아가 연구를 무사히 마쳐 광학 관련 기술력 강화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삼성전기 광학통신솔루션사업부장 이태곤 부사장은 "급변하는 개발 현장에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재"라며 "본 행사를 통해 우수한 학생들이 삼성전기와 소재·부품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기는 소재·부품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포항공대와 채용 연계형 인재양성 협약을 체결해 소재·부품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르노코리아, 필립 베르투 프랑스대사 부산공장 방문

부산공장 주요시설 직접 확인 '오로라 프로젝트 기대감 커져'

주한 프랑스 대사관 인사들이 르노코리아자동차 '오로라 프로젝트'에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르노코리아는 23일 부산공장에 프랑스 대사관 주요 관계자들을 초청했다고 25일 밝혔다.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대사와 아들린-리스크브 경제통상대표부 대표, 마티유 르포르 상무참사관 등이 초청을 받았다. 부산공장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봤다.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은 프랑스 대표기업인 르노그룹 글로벌 허브로, 하이엔드 중형과 준대형 자동차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르노그룹 공장 중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품질 수준을 자랑한다.



르노코리아 스테판 드블레즈 사장(왼쪽)과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대사가 수출형 XM3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특히 르노코리아는 차세대 친환경 신차인 '오로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올 하반기 하이브리드 중형 SUV를 출시할 예정으로, 그 밖에 다양한 모델을 생산해 글로벌에 공급할 예정이다.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대사는 "공장 내부에 태극기와 프랑스국기

가 함께 걸려 있는 모습은 르노코리아가 대한민국과 프랑스 양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하게 상기시켜 준다"며,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는 부산공장을 직접 경험하며 르노코리아의 오로라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 기대감도 함께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삼육대, 제해종 총장 선임

삼육대학교 제 16대 총장에 제해종(사진) 신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학교법인 삼육학원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제16대 삼육대 총장으로 제해종 교수를 선임했다고 25일 밝혔다.

제 신임 총장은 1967년생으로 삼육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앤드류스대 대학원에서 신학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은 조직신학이다.

2012년 삼육대 신학과 교수로 임용됐으며, 이후 교육처장, 생활교육원장, 대학원 신학과장, 신학과장, BFFL 센터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제 신임 총장의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4년이다. /이현진 기자 ihj@



효성중, 우태희 대표이사 선임 추진

내달 주총서 선임 안건 논의

효성중공업이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사진)을 대표이사로 영입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효성중

공업은 다음달 14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우 부회장을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다룬다.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우 부회장은 2019년부터 효성중공업의 중공업 부문을 맡아 온 요코다 타케시 대표



의 후임으로 회사를 이끌게 된다. 1984년 행정고시(27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우 부회장은 2016~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 바 있다. /김재용 기자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김형순 신임 이사장 취임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제 10대 이사장에 김형순 뉴그린 대표(사진)가 선임, 취임했다.

신임 김형순 이사장은 25년이 넘는 업력을 토대로 산업폐기물 소각 업계에서 선·후배간 교류 뿐만 아니라 정부, 국회 등과 업계 발전을 위해 '제2의 도약'을 이끈다는 포부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혐오·기피 시설로만 치부되고 있던 소각 시설의 굴레를 깨고 대의명분을 갖고 국가 기반시설로서의 존재가치를 알리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훈 기자 bada@



포스코, CDP '리더십 등급' 획득

기후변화대응·수자원관리 성과

포스코가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로부터 ▲기후변화대응 ▲수자원관리 부문에서 각각 최고 수

준인 리더십(A-) 등급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CDP 평가 두 부문에서 리더십 A- 등급을 동시에 획득한 철강사는 국내에서 포스코가 유일

하다. 포스코는 CDP에 2003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활동과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평가서를 제출해 오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수자원 관리 활동과 물 회계 내역도 제공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2024.04.26(금)

13:00~17:00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연사-



Robert Coppes
University Medical
Center Groningen



Ryuichi Okamoto
Tokyo Medical and
Dental University
(TMDU)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임승원
현 애니젠 고문
전 한국IR협회의 상근부회장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 행사개요

- **행사명:**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 **일시:** 2024년 4월26일(금) 13:00~17:00
- **장소:**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1층)
- **등록:** <https://onoffmix.com/event/293926> 선착순, 사전접수만 입장 가능
- **문의:** 오가노이드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주최: metr경제

후원: 충청북도
CHUNGCHONGBUK-DO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2:30~13:30	사전등록 (13:00~13:30VP Tea타임)
개회 및 축사	13:30~14:00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섹션1	14:00~15:4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연구 및 현황 강연1: Robert Coppes Prof 강연2: Ryuichi Okamoto Prof 강연3: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대표 강연4: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브레이크타임	15:40~15:55	커피 브레이크 및 자유네트워킹
섹션2	15:55~17:0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시장과 전망 임승원 전 한국IR협회의 상근부회장 등 정부 관계 부처 및 금융기관 전문가
폐회	17:00	

가지급금 변제여부, 업무관련성에 달려



박규익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일반적으로 회사, 특히 중소기업은 회사의 가지급금 계정을 다양하게 활용한다.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일시적으로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도 있고, 그 자금 출처를 남길 수 없는 금액이 사용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물론 대표이사가지급금 계정을 통해서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명백히 대표이사가 해당 금액만큼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회사 운영 목적으로 가지급금을 인출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상당을 변제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뭔가 억울하다.

회생·파산 절차에서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변제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해당 가지급금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됐다는 소명자료를 충분히 준비해둬야 한다. 회사를 위해 가지급금 계정을 사용할 경우 리베이트나 영업비 등의 명목으로 어쩔 수 없이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법원도 인지하고 있다. 따라

서 완벽한 입증이 불가하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자료(해당 금액이 영업직원에게 교부되었다는 사실 확인, 회사 내 자금일보(장부)상 현금시제 반영 등)만 갖추어진다면 법원 또한 해당 금액이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커진다. 단순히 회사에 가지급금 변제 책임을 부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

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해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금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절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판결). 1인 회사이거나 가족회사여서 실질적으로 가지급금 인출자

가 회사로부터의 손익을 전부 부담하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달리 판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판결).

반면 가수금은 어떨까? 회사가 회생·파산에 이르기 전에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기 위해 회사에 거액을 입금시키는 대표자들도 많다. 이렇게 입금된 돈은 회계상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되고 회사는 대표자에게 가수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회사가 회생·파산에 접어들게 되면 다른 채권(대출금, 일반 대여금, 상거래채권)에 비해 후순위로 취급된다. 배당을 받든 변제를 받든 언제나 다른 채무를 먼저 고려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나 처리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도래했을 때, 대표자는 맹목적으로 회사의 재고를 담고 거액을 투자하기보다는 회생·파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이 회사와 스스로를 위해 더욱 바람직할 수 있다. 물론 회사의 가지급금 부분에 대한 소명 역시 도산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 아래 사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법무법인바른

오늘의 운세 2월 26일 (음 17 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솜씨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날이다. 48년생 투자하지 않는 것도 손실을 내지 않는 방법의 하나이다. 60년생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 일이다. 72년생 불평 애기를 들어주신 감사. 84년생 날이 바뀌니 영원한 것은 없다.

37년생 봄날이니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때이다. 49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한계가 있다. 61년생 계획을 세워야 나아갈 수 있으니 결과부터 행하지 마라. 73년생 먼 여행은 다음으로 진행해보자. 85년생 가까운 이웃이 형제보다 낫다.

38년생 참는 것이 불운을 이기는 법이다. 50년생 먹는 것에 유의해야 하는 날. 62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온종일 마음이 즐거운 날이다. 74년생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으니 재도전. 86년생 상대의 단점을 건드리면 나에게 해가 된다.

39년생 사랑이 찾아오니 자손에게 기쁜 일이 생긴다. 51년생 마음이 상하고 몸도 힘드니 재물은 들어온다. 63년생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날이다. 75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다. 87년생 흘러가는 대로 버려두는 것이 상책이다.

40년생 가족의 협조로 일이 잘 성사된다. 52년생 항상 태양은 우리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말자. 64년생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시비도 있다. 76년생 계획한 일의 계약이 성사된다. 88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어지지 실망은 금물이다.

41년생 기만하는 것이 내 재산을 지키는 것. 53년생 귀신은 때에 따라 사람을 도와준다. 65년생 다투기 싫어 날이나 자중하는 것이 좋다. 77년생 직장에서 능력이 펼쳐진다. 89년생 날개를 얻은 격이니 뜻한 바를 이룰 수가.

42년생 자식이 하세가 있다면 부모를 힘들게 할 것이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 54년생 물이 깊어지고기도 모인다. 66년생 천천히 돌아가고 서두르지 마라. 78년생 삼각관계는 부끄러운 일. 90년생 시험에 도전했다면 칠성팔기의 정신으로.

43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꿀을 모을 수가 없다. 55년생 귀신은 인간을 도와주기도 하고 겁주기도 하는 존재라. 67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의리와 절제가 필요한 날. 79년생 모난 돌이 정 맞다. 91년생 시사비바라기가 내 실수도 나온다.

44년생 새해는 임춘을 기점으로 적당하다. 56년생 사람을 믿는 것이 큰 자산이다. 68년생 고인 일은 소나말의 뒷발질이 더 무서운 법이다. 80년생 부자가 되려면 신운을 우선. 92년생 삼재는 용미 원숭이띠 쥐띠이니 삼재 기도를 해보시라.

45년생 새로운 만남에 방심은 금물. 57년생 어디서 부는 바람이 마음을 흔든다 같듯이 생긴다. 69년생 변동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앞만 보고 전진하라. 81년생 겸손이 미덕이다. 93년생 인기 있는 사람의 흠결을 찾으려고 하지 말 것이다.

46년생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그 끝은 참대하리라 구약성경의 한 구절. 58년생 행복의 원천은 가족에게 있으니 화목이 우선. 70년생 시간을 갖고 기다리라. 82년생 먼저 양보하는 습관을. 94년생 대기만성이란 용두사미의 반대말 인격이니.

47년생 호사다마 好事多魔처럼 종일 즐겁다. 59년생 운기란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71년생 기쁜 일일수록 몸을 낮추고 과실을 얻는다. 83년생 팍팍한 삶에서 교육은 희망. 95년생 초년 복 좋은 것이 말년 복 좋은 것보다 못하다.

단통법 폐지, 표심잡기로 그치지 않으려면



기지수첩
구남영 (산업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표심을 잡기위한 공락이 쏟아져 나온다. 특히 정부는 민생안정을 목표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내걸며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추진 중이다. 당초 업계에선 단통법 폐지보다 개선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정부는 '폐지'를 해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새다. 그도 그럴것이 정부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하나로 중저가폰 출시 확대 등을 내세웠지만 여론은 좋지 않았다. 통신비 절감을 체감하려면 근본적인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 정

치권에서도 단말기 가격을 지적하며 단통법 폐지를 촉구했다. 과거 정부는 불법 보조금이 활기차게 지원금을 제한하고 보조금을 규제하는 단통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통신사들 간 마케팅 경쟁이 축소되면서 스마트폰 가격이 비싸졌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도 줄었다.

실제 휴대폰 단말기 평균가격은 지난 7월 기준 약 87만3000원으로 2014년(약 62만원) 대비 41% 늘었다. 이 기간 소비자 단말기 구매 비용은 연평균 4%씩 증가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1.62%)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반면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단통법 시행 전의 이동통신 시장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낮은 상황이다 LTE의 등장으로 이통사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

열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5세대(5G)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이통사가 과거만큼 지원금을 확대할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다.

또 정부가 알뜰폰 사업을 적극 밀어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단통법 폐지를 내세우는 것은 '표심잡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정부의 지원 아래 크게 확장된 알뜰폰 시장이 단통법이 폐지되면 대폭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단통법 폐지 시점은 알 수가 없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법안 폐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4월 총선 후인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은 표심잡기용이 아닌,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책이 탄생하길 기대해본다.

/koogija_tea@metrosoul.co.kr



김상희의 四季 일인 만능시대

대단한 시대가 되었다. 헛치피티 시대에 맞게 지식은 이제 그 누구의 전유물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 누구라도 관심만 있으면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과 노하우를 갖추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개인 혼자서 스스로 직접 생활 공간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고 수리하거나 하는 일인 능력 발휘 시대이다. DIY 즉 '디아이와이'라고 하는 "너 자신이 직접 만들어라"라는 뜻의 영어인 "Do it yourself"의 앞머리 글자의 준말이다. 전문가나 전문 업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재료를 사서 조립하고 꾸미고 하는 개념인 것이다.

전문적인 일든 단순 노동이든 인력이나 인간비가 점점 상승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상업적 노력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전문가에게 맡겨도 자신의 성향이나 생각을 일치시키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기에 비용과 취향을 반영한 신조류라고 할 수 있겠다. 서양에서는 세계 제2차대전이 끝난 무렵부터 성행하기 시작한 풍조라 한다. 우리나라는 몇 년 전부터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이 DIY를 통해 이름을 알리게 되기도 했다. 따라서 자기 만족도도 높는데 비용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일 수 있으니 현대사회에 맞는 일인 만능주의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런 풍조는 단순히 간단한 건축을 떠나 여러 분야에까지 확장되고 있다. 개인의 창의력이 겸비된 아이디어의 결과물들이 많은 사람에게 어필하고 있다. 일인 만능시대라 하여 전통 장인의 깊이와 미학까지 닮기는 힘들겠지만 상당한 수준의 실용과 산박함을 갖춘 것이다. 과거에는 선조와 부모들은 손재주가 있으면 여기저기 불려 다니느라 몸만 고달프다고 보았다. 이는 인간비가 할하던 시절의 얘기다. 요즘은 한 가지 재주와 특기만 잘 살려도 귀하신 몸이다. 시대가 변했음이 극명하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오의 알파벳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QR코드
할인도서

		2	4	8	
1				4	
	8	4	6	1	9
2				5	9
		8			7
3	9				6
	2		6	7	3
		3			8
6	3	5			

			8	2	7
3	1		9		
	8	3		4	5
4	1			6	7
5	9			1	8
6	7		4	9	
			5		4
8	9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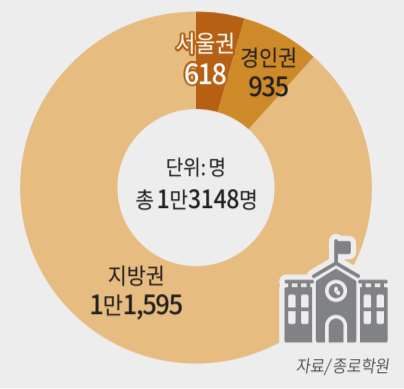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37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8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정시 추가합격에도 1.3만명 미달... '인서울'도 618명 못채워

전국 4년제 86% 모집인원 미달
일부 지방대 정원 절반 이상 못채워
서울권 정원 늘어 수도권 집중 가속

정시 추가모집 미충원 인원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최종 추가합격자 등록 마감 결과 전국 169개 대학이 총 1만3148명의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해 추가모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년제 대학 중 86%가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한 셈이다. 채우지 못한 입학정원 중 88%가량이 지방 대학에서 발생했지만, 서울에서도 31개 대학이 신입생을 다 뽑지 못했다. 대학들은 오는 29일까지 최종 추가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2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정시 추가합격 등록을 진행한 결과 정시에서 인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은 전국 169개교로 1만3148명을 추가 모집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추가모집 규모는 비수도권이 103개 대학에서 1만1595명의 미충원이 발생해 가장 컸다. 이어 경인권 35개교가 935명, 서울권 31개교가 618명 순이었다.

추가모집 규모를 학교당 평균으로 계산해 보면 전국에서 대학당 77.8명이

모집 없이 신입생을 채웠다.

특히 일부 지방 대학에서는 수시와 정시 등 전체 모집에서 정원의 78.4%, 75.6%, 60.4%, 58.6%를 선발하지 못하며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서울권에서는 서경대가 111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세종대 53명 ▲한성대 34명 ▲홍익대 31명 ▲국민대 29명 ▲한국외대 18명 ▲한양대 17명 ▲서울시립대 3명 등이 발생했다.

전국 대학 추가모집 인원은 지난해 1만7439명에서 올해 1만3148명으로 4291명에 해당하는 24.6%가 감소했다. 서울권에서 149명, 경인권에서 158명, 지방권에서 3984명이 감소했다. 특히 지방권은 지난해보다 정시 모집정원을 1815명 줄인 게 감소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서울권은 모집정원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지방권이 모집정원을 축소하며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권 모집정원 확대, 의대 모집정원 확대 등으로 수도권 집중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공간재편 나선다

지하화로 확보한 부지 개발방안 수립

서울시가 지상철도 지하화와 철도부지 상부 활용·개발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정부의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맞춰 지상철도 상부에 대한 도시 공간구상과 개발 방안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내달 발주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제정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해 확보한 부지와 그 주변을 국유재산 출자 등을 통해 개발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중장기 계획인 ‘철도 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그에 따라 서울시가 노선별로 ‘철도 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세운 뒤 사업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내 국가철도 지상 구간



은 총 71.6km에 이른다. 지상철도는 크게 ▲역사(정거장) ▲주변 지역과 비슷하거나 더 낮게 형성된 선로 구간 ▲고가 및 철교 등의 형태로 구성돼 있다.

시는 전체 지상철도 구간에 대한 선제적 공간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국토부에 선도사업을 제안한다. 내년에는 노선별 공간계획을 마련해 국토부의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노령수당 지급 등 고령화 대응하는 세계정책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상하이, 취약계층 복지정책 시행
홍콩, 노령생활수당 수혜대상 넓혀

세계 주요 도시와 국가들이 저출생 고령화와 같은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임산부·노인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5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시가 작년 12월 새롭게 내놓은 ‘기본공공서비스표준’에는 임산부와 빈곤 노인 등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복지 정책 시행 방안이 담겼다.

우선 시는 교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출산을 3개월 앞둔 임산부에게 엽산 보충제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임산부에

대한 출산 지원 강화에 나선다. 또 향촌 거주민 양로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60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기초양로금 지급액을 기존 월 1200위안(한화 22만1940원)에서 1400위안(한화 25만893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홍콩은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며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는 중이다.

홍콩의 고령자 수는 2010년 83만 6000여명에서 2020년 약 129만7000명으로 10년 새 55% 넘게 증가했다. 홍콩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1년 20.5%에서 2046년 3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콩사회복지부는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6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매월 4060HKD(한화 69만1418원) 수준의 노령생활수당을 제공한다. 소득 기준에 가족·친지의 증여금을 포함 시키지 않고, 대상자 소유의 부동산 및 가입한 보험 제도의 현금 가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수혜 대상을 넓혔다.

한국의 노령연금도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만 지급 대상에 해당하나, 홍콩의 노령생활수당은 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홍콩 계속 거주 기간이 7년 이상인 노인이고, 소득·자산 요건만 충족한다면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서울연구원은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서울 공립초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초등학교 421곳에 452명 배치
1000명 이상 과대학교엔 2명씩

올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421곳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희망하는 모든 공립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고, 1000명 이상의 ‘과대학교’는 원어민을 2명 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사업은 서울 영어 공교육 강화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된다. 초등학교 3학년 영어 공교육 시작 단계에서의 영어 교육격차 문제 및 이후 심화되는 영어학습 격차문제 해소 및 사교육 경감 방안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말 시교육청이 시행한 수요조사 결과, 총 421개 기관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희망했으며 교육청은 이를 100% 반영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지난달 22일 각 학교 및 기관에 배치 완료됐다. 신규 선발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95명은 오는 26일 국립국제교육원(EPIK)이 주관하는 7박 8일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학교로 배정받게 된다.

원어민 교사는 3월부터 3~6학년 영어 수업에 투입되며 방학 중에는 영어 캠프 등을 운영하게 된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 이민관리청 유치에 시민 힘 모아

범시민 서명운동 등 유치활동 돌입

고양시가 법무부에서 신설·추진 중인 이민청 유치를 위해 사뽏팔달 고양 특례시는 이민관리청의 최적지라며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법무부는 범정부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과 통일된 이민정책 설계를 위한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포함한 「제4차 외국인 정책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고양시는 올해 1월 이민청 유치 본격추진 선언과 함께 TF 구성 및 활동을 개시했다. 고양시의 이민청 유치 당위성을 정부에 알리기 위해 지난

21일 덕양구청에서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자매결연도시에서 서한문 발송과 이민청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이민청의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추진 및 국외대학 유치 등과 연계한 글로벌 자족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2월 26일(월)
음력: 1월 17일

수도권 날씨
-1 ~ 8°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해출 / 07:09 | 해질 / 18:22

지역별 날씨: 연천 -5/8, 동두천 -4/9, 가평 -4/9, 양평 -3/9, 용인 0/8, 평택 -3/8, 수원 0/8, 인천 -1/7, 파주 -5/8, 서울 -1/8, 백령도 0/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트럼프,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도 21.5%P 차 압승
▲이집트, 가자지구 칸유니스에 팔 난민 수용소 추가 건설 발표 /사진 뉴시스

▲미-영 연합군, 주말 예멘의 수도 사나 폭격- 후티군 TV보도
▲인도, 야생 코끼리 공격 급증에 ‘안전 울타리’ 설치한다



▲“후티 반군 공격 탓 홍해에 29km 기름 띠 생겨” /사진 뉴시스
▲아랍 최대기구 OIC, 가자 공격에 130명 숨진 기자 보호 요구



KT&G
방경만 사장 후보
해결과제 산적
L1



Life

바이오업계
안과질환 치료제
개발 속도
L2



“국회의원 특권폐지는 ‘시대적 화두’... 국민 보는 정치해야”



특권폐지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장 기 표 대표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만난 장기표 특권폐지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대표(79)는 본격적인 창당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데 정신이 없었다. 그는 기자에게 자필로 쓴 국회의원 특권 목록을 보여주면서 특권 폐지는 이번 총선의 ‘시대적 화두’라고 설명했다.

장기표, ‘영원한 재야’로 불리는 정치인이다. 그는 민주화와 노동 운동에 앞장섰고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을 거쳐 이제 ‘국회의원 특권폐지’란, ‘정치의 새로운 새벽’을 몰고 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올해 총선에서 비례대표 5명 당선 목표

장기표 대표의 목표는 명료하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 5명을 당선시키는 것이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라는 목표를 원내에 진입해 스스로 실천해보이면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다른 대다수의 의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국회의원이 과도한 특권, 파렴치한 특권을 누린다. 이렇게 누리면 누릴수록 국민은 안중에 없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권을 누리다 보면,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고유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정당이나 당의 대표가 형편 없어도 따라다니고 돈 봉투 사건이 생긴다. 이런 것을 없애야 하는데, 결국은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투표의 중요성을 짚었다.

◆‘의원 특권 점점 늘어나...100만 당원 양성해 폐지할 것’

장기표 대표는 ‘100만 당원’ 양성론을 펼쳤다. 이번 22대 총선이 “국민이 국민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때”라고 했다.

그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 정당지지를 10%를 얻어서 5명만 당선시키면 의원 특권폐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홍보 활동을 펼쳐서 당원 가입 100만명을 시키면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국회의원의 특권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은 2023년 기준 1억5426만원의 수당과 경비를 받는다. 경비로는 매월 입법활동비가 313만원, 특별활동비가 78만원을 받는다. 월 평균액으로 1285만원이다. 입법 활동



장기표 특권폐지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대표가 지난 20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메트로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태홍 기자



“영원한 재야”의 정치인... 국회의원 특권 폐지 앞장
비례대표 후보 5명 당선 시작으로 의원 참여 늘려
높은 수당·각종 경비, 과도한 보좌진 등 특권 줄여야
지방의원 공천 현금, 승진·일자리 알선 등 문제도
정치권 신뢰도 끌어... 입법, 국정감사에 집중해야

비는 입법 기초자료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경비이고, 특별활동비는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다.

또한 국회의원 지원 예산도 있다. 먼저, 사무실 운영비로 비서실 운영비 월 18만원이 정액으로 나오고 업무추진비는 연 348만원까지 증빙을 통해 정산한다. 전화와 우편 등 사무실에 들어가는 공공요금도 매월 95만원을 받고 사무실 소모품도 연 519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의원차량에 대한 유류비도 나온다. 매월 110만원씩 나오며, 차량 유지비는 위원장은 월 100만원, 의원은 월 35만원씩이다. 공무수행 출장비는 연평균 1141만원이 책정됐고 의원실 사전 신청 후 사후 지급한다.

입법 및 정책 개발 지원으로도 수천만 원을 받는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연 2546만원, 정책자료 발송료로 연 755만원, 의정안내 문자메시지 발송료로 연 700만원, 정책자료 발간비 및 홍보물 유

인비로 연 1200만원의 세비가 나간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소규모 용역 등을 개최하거나 발주하는 경비다. 또한 국회의원의 월급과 수당은 셀프로 인상할 수 있는 구조다.

장기표 대표는 “명절휴가비를 왜 주나. 어디 선물하라고 주는 것인가. 국회의원은 당선 전에 자신이 타고 다녔던 차 끌고 다니면 안 되는 것인가. 거기에 왜 유류비까지 지원을 하나”라면서 “의원회관에 300명의 의원들을 위한 45평 정도의 사무실도 있다. 외국과 비교하면 디럭스 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가 이 각종 수당과 경비 중 꼭 필요한 것만 취하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반납해서 특권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원 월급 400만원 제외 반납, 보좌진은 3명만

국회의원은 1명당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상임위원장을 맡으면 추가로 보

좌진의 채용 가능하다. 선거철만 되면 9명의 보좌진들이 국회를 비우고 지역구로 내려가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 이 또한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꼽힌다.

장 대표는 “지금은 선거운동 철도 아닌 데 벌써부터 지역에 내려가 의원을 돕고 있다.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장 대표는 특권폐지당 소속 국회의원은 월급을 400만원만 받고 이외의 세비는 모두 반납하고 보좌진도 3명만 채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또 다른 특권으로 지방의원의 공천 현금 문제를 꼽았다. 장 대표는 “지방의원 공천을 각 정당의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이 주로 결정한다.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되려면 국회의원에게 1억~2억원씩 공천 현금으로 갖다 받치는 것이 시스템화 돼 있다”면서 “그렇게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되면 사실 국회의원 비서 내지 선거운동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공직 승진이나 일자리 알선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서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나 자녀의 결혼식이 있으면 수억원씩 걷히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특권 누리는데 정신없다

장기표 대표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좋은 자리면 그렇게 국회에 오려고 하겠나. 특권을 폐지해야 하는데, 특권을 누리는데 정신이 없다”며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낙선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열심히 해야한다. 스웨덴의 경우, 국회의원 하려고 사생결단 열심히 하지 않는다. 임기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할 일만 하면 되는데, 특권에 빠져 그마저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영국의 싱크탱크인 레가툼 연구소(legatum Institute)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67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가 114등에 그치고 행정부에 대한 신뢰가 110등에 그친다. 거의 꼴찌 수준이다. 부끄러운 나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고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 첫째는 입법 활동과 정책에 대한 결정, 다른 하나는 국정감사권”이라며 “국회의원은 일상적으로 행정부를 감사할 수 있다. 대정부질문을 통해서건 수시로 감사를 한다”며 “하지만 이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 제대로 비판을 할 수가 없다”며 국회의원 특권 폐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롯데, 日 지바롯데와 교류전서 패배... 월커슨 “좋은 실전 경험”
▲정승헌, UAE리그 2경기 연속골... 골 넣는 수비수 변신 /사진 뉴스스

▲‘양인모 &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3월 롯데콘서트홀 공연
▲‘직지심체요절’ 복원본 등 140점...송파책박물관 전시회



▲재미교포 김찬, PGA 멕시코오픈 3R 공동 3위 /사진 뉴스스
▲연극 ‘클로저’ 8년 만에 귀환...이상윤·진서연·안소희 출연